

아동과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지각: 토착심리학적 접근

박 영 신[†] 김 의 철 한 기 혜
인하대 교육학과 중앙대 심리학과 인하대 교육학과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부모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 하는 토착심리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아동과 청소년들이 부모에 대해 고마움, 존경심, 죄송함, 친밀감, 갈등, 거리감을 느끼는 정도와 그 이유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총 763명으로서, 초등학교 3학년 212명, 중학교 2학년 267명, 고등학교 2학년 284명이었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면에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한국 아동과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토착적인 지각과 관련된 내용이다. 부모에 대해 매우 고맙게 생각하였으며, 존경심을 갖고, 동시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부모의 가족을 위한 희생과 고생이 부모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심의 가장 대표적인 이유였다. 이외에도 부모에 대한 존경의 이유로는 성실함, 혈연관계, 인자함, 높은 교육열과 지도가 포함되었다. 또한 한국의 아동과 청소년은 부모에 대해 강한 죄송함을 갖고 있었는데, 죄송한 이유로는 순종하지 않음과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침 및 학업에 소홀함이 지적되었다. 부모 중에서 특히 어머니에 대해 강한 친밀감이 있었으며, 부모와 갈등의 이유로서 세대차이와 학업문제가 대표적으로 부각되었다. 둘째, 아동기에서 청소년기까지 부모에 대한 지각의 변화 측면이다. 부모와의 갈등은 점차 증가되었다. 부모에 대한 죄송한 마음도 증가하였으며, 이와 대조적으로 부모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심은 감소하였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친밀감은 감소하였다. 셋째, 하위집단별 아동과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지각의 차이와 관련된 결과이다. 학업성취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또한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부모에 대해 고마움과 존경 및 죄송함을 느끼는 정도가 더욱 높았고, 갈등이나 거리감은 적었다.

주요어 : 아동과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지각, 토착심리학적 접근, 부모에 대한 고마움, 부모에 대한 죄송함, 부모에 대한 존경, 부모에 대한 친밀감, 부모와의 갈등, 부모와의 거리감

[†] 교신저자 : 박영신, (402-751),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E-mail : yspark@inha.ac.kr

문제의 제기: 한국인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토착심리학적 접근의 필요성

약 50여년 동안 한국은 경제적으로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한국 사회보다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도 깊은 서구의 선진국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한국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발전된 서구사회에 대한 선망의식은, 한국 사람의 미국 사회와 미국 사람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최근의 연구(김의철, 박영신, 오나라, 2003)에서도 시사되었다. 비록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미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인식이 공존하고 있었다. 본 연구자들은 한국 사람들의 미국 사회와 미국 사람에 대한 이러한 양가감정을 ‘선택적 반미’라고 표현한 바 있다. 한국 사람들에게 발전된 서구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국가인 미국 사회에 대한 선망 현상은, 중산층 주부들 사이에서도 확산되고 있는 ‘원정 출산’이라든가, 조기유학과 불법유학의 급증, 사회적 유행어가 된 ‘별거 이민’이라든가 ‘기러기 아빠’라는 말들, 지금도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이민에 대한 높은 관심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Hofstede(1991)의 분류체계를 적용해 본다면 소위 선진국들은 개인주의 문화권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개인주의 문화가 갖는 다양한 장점들은 한국 사람들을 매료하기에 충분하였다. 그러나 집단주의 문화를 갖고 있는 우리 사회를, 개인주의 사회가 갖는 장점의 잣대를 갖고 비추어 보면서 문제점을 비판하는데 너무 급급해 온 것은 아닌가? 물론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들(김묘성, 김의철, 박영신, 2002; 윤영진, 김의철, 박영신, 2002)이 분명히 있

지만, 한국 사람들은 한국 문화와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을 그대로 바라보아 주는데 너무 무심하고, 그대로 인정하는데 너무 인색했던 것이 아닌가? 즉 우리 것을 우리 것 그 자체로 이해하려는 노력보다는, 서구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함부로 평가하는 잘못을 너무 많이 범해 왔던 것이 아닌가? 과연 우리는 우리의 고유한 전통적 가치와 문화에 대해 얼마나 제대로 알고자 하였으며, 온고지신(溫故知新)하려는 성실한 노력을 얼마나 기울여 왔는가? 하는 자문을 하게 된다.

선진화된 대표적인 개인주의 사회 중의 하나인 프랑스에서 최근 공식적으로 발표된 고위 지도층 인사들의 다음과 같은 발언은, 한국 사람들이 선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개인주의 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그 한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2003년 8월 중순 2주 동안 연일 섭씨 40도를 넘는 폭염으로 인해 프랑스에서, 특히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은 파리 지역에서 약 5,00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파리 시내에서만 300~400명의 독거노인 사망자들의 유족을 찾지 못하고 있고, 갑자기 늘어난 시신들을 안치할 공간을 확보하느라 당국은 애를 먹고 있다. 유족들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가족들과 떨어진 채 오랫동안 혼자 산 노인들이 많았을 뿐 아니라, 노인을 집에 혼자 둔 채 피서를 떠난 뒤 아직 돌아오지 않은 가족들도 많기 때문이다. Delanoe 파리 시장은 TV에 나와 “우리가 겪은 비극에 무관심의 비극까지 덧붙여지지 않도록 할 시간이 아직 남아 있다”며 유족들이 나타날 것을 호소했다. Guinot-Delery 파리시 사무국장은 8월 24일 “우리가 신원을 확인한 수백 구의 시신이 남아 있지만, 가족과 친지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며 “병원과 장의업체의 영안실에 자리를 찾지 못한 100여구의 시신을 9

대의 냉동트럭에 보관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수백 명의 가족들이 보여주는 무관심으로 인해 우리는 행정적 기술적 문제를 넘어선, 예외적 상황에 직면했다”며, “우리는 분명히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개탄했다. 일간지 르 피가로에서는 25일자 사설인 ‘프랑스의 야만’을 통해, “프랑스인들은 TV 토크쇼에 나와 시민의식에 대해 지루하게 늘어 놓기를 좋아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하지 않는 야만이 됐다”고 개인주의 풍조를 개탄했다(조선일보, 2003년 8월 26일).

프랑스가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는 무엇인가? 부모의 시신조차 찾아가지 않아 시장이 공영 TV에 나와 부모의 시신을 찾아 가라고 호소할 정도로, 극단적인 개인주의 풍조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을 때 나타나는 사회문제의 예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 이는 서구의 개인주의 사회를 답습하는 것만이 유토피아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달리 말하면, 우리 사회가 뿌리 내리고 있는 문화적 전통적 가치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장점을 살려 나가려는 노력이 강력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사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은 미래 한국 사회의 모습을 창조적으로 구현해 나가야 할 책임을 갖고 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현상과 사건들을 접하면서, 한국 문화의 정체성이 이미 상실되었거나, 방향 감각이 마비되었거나, 정신사적으로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지지 않았는가를 의심하게 되기도 한다. 효도관광을 빙자하여 제주도에서 부모를 모시고 갔다가 버려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노인들, 소위 ‘현대판 고령장’의 현상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몇 년 전부터 접하고 있다. 대가족으로 지내던 우리의 전통

적인 가족구조는 농경사회에서 현대 산업사회로의 변화과정에서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핵가족 시스템으로 바뀌어져 왔고, 요즘은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돌보지 않아 비참한 연명을 겨우 해 나가고 있는 독거노인들의 생활 모습에 대한 소식을 접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현상이나 사건의 예를 보면, 한국 사회도 매우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보면 가족과 친지를 기다리는 수백구의 시신이 들어있는 냉동트럭이 파리지만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볼 날도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을 지나친 예측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소위 현대화되어 간다는 한국 사회의 급격한 변화가 개인주의의 병폐를 닦아가는 방향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된다. 여기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대답의 가능성을 밝혀주는 결과들이 있다. 최근에 한국 사회의 세대차이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이루어진 두 편의 연구(김명언, 김의철, 박영신, 2000; 김의철, 박영신, 김명언, 이건우, 유호식, 2000) 결과를 예로 들 수 있다. 컴퓨터 사용 정도나 선호하는 음악 등 일상행동에서는 극단적인 세대차이가 있었다. 또한 노인이 가장 전통지향적인 역할행동을 지지하고, 이와 대조적으로 청소년이 가장 진보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분명한 세대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청소년과 성인 및 노인은 모두, 생활목표로서 다른 무엇보다 가정의 화목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공통점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화목한 가정을 위한 가족의 역할에 대해 분석한 일련의 연구들(최중숙, 박영신, 김의철, 2003; 함병미, 박영신, 김의철, 2003)에서도,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가치가 세대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예컨대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자녀는 ‘부모를 공

경'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을, 부모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또한 아버지가 할 일로서는 '가장으로서 역할 충실'이, 어머니가 할 일로서는 '가족을 위한 희생'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경험과학적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해주는 최근의 사건 예를 드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설비회사 사장을 하다가 'IMF 위기'로 부도가 나서 노점상에 소음방지공사 하도급 일까지 하게 된 아버지를, 실업고에 다니던 건강한 체격의 아들이 휴일마다 아버지를 도왔는데, 비 오는 날 지하 2층에서 방음재 부착공사를 하다가 공업용 본드에서 나오는 유독가스에 취해 부자가 정신을 잃고 질식사한 사건(조선일보, 2003, 7, 19)이 있었다. 늘 "아버지를 돕겠다"던 효자 아들이었다. 이 사건이 발생한 것과는 거의 같은 시기에, 대학교를 다니는 두 아들이 간경화 진단을 받은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간이식 수술을 하였고, 두 아들의 효심에 감동을 받은 직장 동료들이 병원비를 모금하여 성금을 전달하는 미담(중앙일보, 2003년 8월 6일)도 있었다. 그 두 아들은 "아버지를 살릴 수만 있다면 저의 간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고 말했다.

어릴 때부터 멸시했다는 이유로 부모를 토막살해하여 전국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명문 대학생의 패륜범죄(이훈구, 2001)에서부터,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부모의 목숨을 구하려는 대학생 자녀에 이르기까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여 드러나고 있는 현상들은, 한국 사회의 보편적인 가족가치의 현 주소를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양극단을 보여준다. 물론 독자의 관심을 사로잡아야 하는 저널리즘의 속성으로 인해, 극단적인 사례들이 보다 선택적으로 보도되는 면도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연구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 갖는 보다 일반적인 표상을 찾아보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과연 최근 한국의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사회적 표상은 어떠한 모습일까? 그것이 과거 전통 한국 사회로부터 전해오는 부모에 대한 표상과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변화되지 않고 유지되는 특징은 어떤 측면들인가? 하는 질문으로부터 이 연구는 출발한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기사화되고 있는 충격적이거나 감동적인 사건들 낱말에 대한 개별적인 인상이 아니라, 한국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토착적인 지각에 대해, 경험과학적 자료에 기초한 보다 종합적인 이해를 시도하고자 한다.

자녀가 부모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를 파악함으로써, 한국 사람의 토착적인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이해를 추구해 감에 있어서 토착심리학의 철학과 접근논리(Kim, 1999; 2001; Kim, Park, & Park, 2000)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¹⁾. 인간관계가 중요한 한국 사회에서 모든 인간관계의 원형으로서 부모자녀관계(Park, 2002b)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는, 한국의 가정만이 아니라 학교 및 기업 등 한국 사회의 조직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접근해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모자녀관계에 관련된 경험적 연구의 결과

사회적 지원이 개인의 건강한 삶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문제를 심리학적으로 연구한

1) '토착심리학의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박영신과 김의철(2003c), Kim과 Berry(1993), Kim과 Park(2003)을 참고할 것.

결과들(House, Landis, & Umberson, 1988; Triandis, Bontempo, Villareal, Asai, & Lucca, 1988)이 오래 전부터 누적되어 왔다. 한국에서도 여러 연구들(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이상미, 권혁호, 양계민, 2000)에서 이러한 사회적 지원의 중요성을 확인하여 왔다.

의미있는 타인으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특히 부모로부터의 사회적 지원은 청소년 자녀들의 심리와 행동의 형성과정에서 그 영향력이 매우 큰 것으로 확인(김의철, 박영신, 1999)되었다. 예컨대 도시와 농촌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박영신, 김의철, 김영희, 민병기, 1999)에 의하면, 부모의 사회적 지원은 자녀의 생활만족도 형성에 직접효과와 더불어 자기효능감을 통한 간접효과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농촌의 초등학교 3학년 시기까지 중단적으로 추적하여 인과관계를 분석(박영신, 김의철, 민병기, 2002)하였을 때에도, 부모의 사회적 지원은 자녀의 생활만족도 형성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였다. 생활만족도와 대조된다고 할 수 있는 스트레스 형성과정에서 부모의 사회적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권혁호, 박영신, 김의철, 2003)도 밝혀졌다.

부모의 사회적 지원에만 국한하지 않고, 보다 넓은 의미에서 부모와의 관계가 자녀의 심리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폭넓게 연구되어 왔다. 예컨대 애정 적대 무관심 통제와 같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성취동기, 생활만족도, 학업성취 및 일탈행동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박영신, 김의철, 2000)되었다. 부모자녀 관계가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박영신, 김의철, 2003a; Chung, Choi, Park, & Kim, 2002)만이 아니라, 부모자녀관계가 자녀의 일탈행동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표집을

대상으로 검토되어 왔다. 예컨대 일반 중 고등학생(박영신, 김의철, 2001a), 쉼터와 교육청에 위탁된 위탁청소년(박영신, 김의철, 2001b), 법적 보호관찰을 받는 보호관찰 청소년(한기혜, 박영신, 2003; 탁수연, 박영신, 김의철, 2002) 및 소년원생(박영신, 김의철, 1998)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박영신, 2003; 박영신, 김의철, 2003b), 부모자녀관계가 자녀의 일탈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사람의 토착적인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관심의 증가

토착심리학적 접근을 통해 한국 사람의 부모자녀관계를 규명하려는 노력도 점차 증가하였다. 박영신, 김의철과 김묘성(2002)의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의 형성과 극복 과정에서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보여주었다. 또한 성취 관련 과정에서 부모의 기여는 절대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부모의 중요성은 성공에 대한 표상(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2)에서 뿐만 아니라, 실패 및 미래성취에 대한 표상에서도 거듭 확인되었다(Tak, Moon, Park, & Kim, 2002). 한편 부모나 자녀에 대한 사회적 표상(Hamm, Park & Kim, 2001)이나, 부모 및 자녀와의 관계를 통한 자기개념에 대한 탐색(Hamm, Park & Kim, 2002) 결과도, 한국 사람들의 자기인식이 독립적인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인간관계 특히 부모와의 혈연관계를 통해 확대되고 있는 자기인식의 독특한 측면들을 밝혔다. 또한 한국 사람들의 부모에 대한 신뢰와 불신의를 살펴본 결과(Lee, Park, & Kim, 2002) 또한, 희생 등과 같이 관계 중심의 매우 토착적인 심리들이 신뢰 형성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질적인 분석방법을 통해 밝혀진 한국 사람들의 부모자녀관계와 관련된 토착심리는, 양적인 측정이 가능한 변인들로 제작되기 시작하여, 점차 양적인 분석방법을 통해서도 검토되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예컨대 부모에 대한 존경심과 죄송함 등을 부모자녀관계의 하위변인으로 구성하여, 이러한 변인들이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및 학업성취와 어떠한 관련을 갖고 있는지 경로모형으로 검증한 바 있다. 경로분석 결과, 부모에 대한 죄송함은 자녀의 성취동기에 정적인 효과가 있었고(정갑순, 박영신, 김의철, 2002a), 부모에 대한 존경심은 자녀의 자기조절학습효능감에 정적인 효과가 있었다(정갑순, 박영신, 김의철, 2002b). Park(2002a)은 한국 사람의 부모자녀 관계 토착심리를 분석한 일련의 연구 결과들에서 밝혀진 바에 토대하여, 부모의 자녀에 대한 무조건적인 희생과 자녀의 부모에 대해 효도하는 마음의 형성에 대해 그림 1과 같은 형태로 설명을 시도한 바 있다. 물론 이러한 개념모형은 경험과학적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계속 수정 보완되어가야 할 것이다.

연구의 목적 및 내용

그간의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부모자녀관계가 청소년의 학업성취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력이 있으며(박영신, 김의철, 2003a), 청소년의 일탈행동 과정에서는 어떠한 역동을 거치는지(박영신, 김의철, 2003b)가 종합적으로 개관된 바 있다. 이러한 일련의 개관을 통해 자녀의 성장과정에서 부모 영향의 중요성이 재확인됨과 더불어, 한국 사람들의 토착적 부모자녀관계가 갖는 문화적 독특성에 대한 재발견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부모자녀관계가 자녀의 심리적이고 행동적인 성장과정에서 차지하는 중요도에 대한 확인은, 한국의 아동과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사회적 표상을 보다 철저하게 검토하는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또한 한국의 문화적 토양에 뿌리내리고 있는 한국인의 토착적 심리 이해라는 면에서도, 한국 사람들의 부모와 자녀 관계는 연구의 중요성이 있다. 이러한 인식 아래, 본 연구에서는 한국 아동과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지각을 양적이고 질적인 접근을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써, 그것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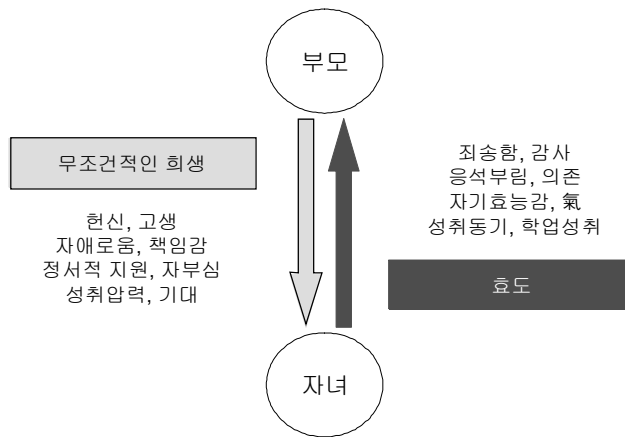


그림 1. 한국인의 토착적 부모자녀관계

(출처: Park, Y. S. (2002a). p.101

본래 모습에 대한 파악에 관심을 갖는다.

그동안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지만, 주로 서양의 도구를 번역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한 도구를 통해 결과의 반복검증이나, 서양인 심리의 틀에 한국인의 심리를 꿰어 맞추어 보는 작업이 흔히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아무리 한국의 자녀들을 표집 대상으로 연구한다고 해도, 연구문제 접근의 논리와 사용되고 있는 측정도구가 근본적으로 한국인을 토착심리를 질적으로 이해하려는데 토대를 둔 것이 아니면, 본질에 대한 이해가 어려울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 아동과 청소년이 부모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 하는 토착심리를 분석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아동과 청소년들이 부모에 대해 고마움, 존경심, 죄송함, 친밀감, 갈등, 거리감을 느끼는 정도와 그 이유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세 측면, 즉 한국 아동과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지각, 아동기에서 청소년기까지 부모에 대한 지각의 변화, 학업성취와 가정의 경제수준 및 성별과 같은 하위집단별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지각의 차이의 면에서 조망해 보고자 한다.

방 법

분석대상

이 연구의 표집대상은 초 중 고등학생이었으며,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2개 초등학교, 2개 중학교(남중 1개교, 여중 1개교) 및 2개 고등학교(남고 1개교, 여고 1개교)에서 각각 표집하였다. 초등학생은 3학년을 대상으로 320명(남 160명, 여 160명)을 표집하였다. 그 중에서 응답을 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하여 자료로서 부적합한 경우를 모두 제외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212명이었다. 중학생도 2학년을 대상으로 320명(남 160명, 여 160명)을 표집하였다. 회수된 자료 중에서 성실성이 의심되는 자료를 제외한 결과, 최종 분석대상은 267명으로 확정되었다. 고등학생의 경우는 2학년을 320명(남 160명, 여 160명)을 표집하였는데, 성의없게 응답하여 자료로서 가치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 284명이 분석대상으로 확정되었다. 분석대상의 학교수준별, 성별 분포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대상과 관련된 배경정보로서, 평균 연령은 초등학생이 10세(최빈치-10세), 중학생이 14세(최빈치-13세), 고등학생이 17세(최빈치-17세)이었다. 응답자가 지각한 학업성취수준²⁾은 상집단이 99명(13.7%), 중집단이 445명(61.6%), 하집단이 178명(24.6%)이었다. 또한 응답자가 지각한 가정의 경제수준³⁾은 상집단이 235명(32.7%), 중집단이 388명(54.0%), 하집단이 96명(13.3%)으로 구성되었다.

표 1. 분석대상

성별 \ 학교	초등 3	중 2	고 2	계
남자	72	133	135	340
여자	138	127	142	407
무응답	2	7	7	16
계	212	267	284	763

- 2) ‘학업성취’ 측정문항에 대해 응답하지 않은 42명(5.5%)을 제외하고, SPSS 출력본의 valid %를 구한 결과임.
- 3) ‘가정의 경제수준’ 측정문항에 대해 응답하지 않은 45명(5.9%)을 제외하고, SPSS 출력본의 valid %를 구한 결과임.

측정도구

이 연구를 위한 측정도구는 연구자에 의해 제작되었다. 질문지에서는 부모에 대한 고마움, 존경심, 죄송함, 친밀감, 갈등, 거리감의 정도를 질문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질문에 대해 5점 척도(1-전혀 아니다, 2-약간 아니다, 3-중간, 4-약간 그렇다, 5-매우 그렇다)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나아가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자유 반응형 질문에 대해 응답자가 자유롭게 기록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질문은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에 대해 모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 외에 배경정보로서 응답자의 성별, 학업성취 수준 및 가정의 경제수준에 대해 질문하였다.

실시방법

자료의 수집은 2002년 5월에서 6월까지 2개월 동안 이루어졌다. 각 학교에 연구조교들이 방문하여 질문지를 직접 실시하고 회수하였다. 학급 사정상 직접 실시가 불가피한 경우는 담임교사에게 질문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담임교사가 실시하도록 하였다. 질문지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30분 정도였다. 성실한 응답을 유도하기 위해, 모든 표집대상들에게 적절한 선물을 제공하였다.

결 과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지각: 고마움, 존경심, 죄송함, 친밀감, 갈등, 거리감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의 부모에 대한 지각의 정도를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에 대해 정리한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아버지에 대한 지각의 정도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고마움’이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그 다음이 ‘존경심’이었는데, 평균 4점 이상으로서 ‘매우 그렇다’에 가까운 반응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죄송함’과 ‘친밀감’도 평균 4점에 가까우므로 ‘약간 그렇다’는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비해 ‘갈등’과 ‘거리감’은 평균 2점 이상을 보이므로 ‘약간 아니다’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학교수준별로 아버지에 대한 지각이 어떠한 변화를 하는지를 살펴보면, 고마움과 존경심의 경우는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을 거쳐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하강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친밀감의 경우도 같은 패턴이나 고등학생이 됨에 따라 하강하는 정도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죄송함은 이와 반대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즉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감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갈등과 거리감은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였는데, 초등학생에서 가장 낮았으며 중학생을 거쳐 고등학생으로 됨에 따라 상당히 증가하였다.

어머니에 대한 지각의 정도를 보면, ‘고마움’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친밀감’ ‘존경심’ ‘죄송함’의 순서로서 모두 4점 이상의 매우 높은 값을 보였다. 즉 어머니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친밀감을 느끼며 존경할 뿐만 아니라 죄송하게 생각하는 정도가 청소년집단에서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갈등’은 3점 미만, ‘거리감’은 2점 미만으로서,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낮은 평균을 보였다.

어머니에 대한 지각을 학교수준별로 비교한 결과를 보면, 고마움과 친밀감 및 존경심은 동일한 변화 경향을 나타내어, 초등학생에서 가장 높고 중학생을 거쳐 고등학생이 됨에 따라 점차

표 2. 부모에 대한 지각 정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아버지				어머니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고마움	M	4.84	4.59	4.54	4.64	4.89	4.76	4.72	4.78
	SD	.46	.84	.79	.74	.39	.52	.61	.53
존경심	M	4.61	4.35	4.26	4.39	4.66	4.44	4.36	4.47
	SD	.78	1.01	.99	.95	.70	.79	.83	.79
죄송함	M	3.81	4.03	4.09	3.99	3.90	4.22	4.22	4.13
	SD	1.15	1.11	.98	1.08	.97	.93	.85	.92
친밀감	M	4.44	3.91	3.62	3.95	4.60	4.59	4.35	4.50
	SD	1.00	1.21	1.11	1.17	.89	.74	.82	.82
갈등	M	1.93	2.30	2.76	2.37	1.96	2.47	2.73	2.43
	SD	1.30	1.34	1.14	1.30	1.21	1.26	1.08	1.22
거리감	M	1.90	1.95	2.48	2.14	1.80	1.71	1.87	1.79
	SD	1.39	1.27	1.19	1.30	1.30	1.13	.98	1.13

하강하였다. 그러나 죄송함은 이와 반대되는 패턴을 보였는데, 초등학생에서 중·고등학생으로 성장함에 따라 점차 증가하였다. 거리감에서는 학교수준별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갈등은 초등학생에서 2점 정도의 ‘약간 아니다’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3점에 가까워져서 중간수준이 되었다. 이는 청소년 초기에 해당하는 초등학생에서 후기의 고등학생으로 됨에 따라 갈등이 매우 증가함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부모에 대한 고마움

집단별 부모에 대한 고마운 정도의 차이

분석대상의 학교수준별, 성별, 학업성취별, 가정의 경제수준별로 부모에 대해 고마운 정도를 인식하는데 있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아버지에

대해 고마운 정도에 있어, 학교수준별과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p < .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학업성취수준별로는 $p < .01$ 수준에서 차이가 있었고, 성별로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유의한 차이가 밝혀진 일원변량분석 결과에 대해 Scheffe의 사후검증을 하여, 그 결과 동질 집단을 a, b, c로 표시하였다. 하위집단별 평균을 비교해 보면, 학교수준별 분석에서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보다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었다.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상·중·하집단과 중·중·하집단이 하·중·하집단보다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의 평균이 더 높았다. 학업성취별로는 상·중·하집단이 중·중·하집단보다 더 높은 평균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보다,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더 좋을수록, 공부를 더 잘 하는 학생일수록 아버지에 대해 더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표 3. 집단별 부모에 대한 고마운 정도의 차이

<아버지>						<어머니>					
독립변인	집단	N	M	SD	F/t	독립변인	집단	N	M	SD	F/t
학교수준별	초	210	4.84 _b	.46	10.94 ***	학교수준별	초	211	4.89 _b	.39	6.05 **
	중	264	4.59 _a	.84			중	267	4.76 _a	.52	
	고	282	4.54 _a	.79			고	283	4.72 _a	.61	
성별	남	338	4.66	.75	.68	성별	남	340	4.79	.52	.27
	녀	403	4.63	.73			녀	406	4.78	.52	
학업성취별	상	99	4.85 _b	.46	4.89 **	학업성취별	상	99	4.91 _b	.48	3.47 *
	중	443	4.62 _a	.77			중	445	4.79 _{ab}	.50	
	하	133	4.56 _a	.79			하	136	4.74 _a	.56	
가정의 경제수준별	상	232	4.75 _b	.64	8.24 ***	가정의 경제수준별	상	235	4.90 _b	.34	9.35 ***
	중	385	4.63 _b	.72			중	387	4.74 _a	.58	
	하	96	4.39 _a	.99			하	96	4.67 _a	.61	

a b c는 Scheffe test결과임.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의 정도도 하위집단별로 차이가 있었다.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p < .001$ 에서, 학교수준별로는 $p < .01$ 수준에서, 학업성취별로는 $p < .05$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로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집단별 평균을 비교해 보면,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상집단이 중 하집단보다 높았다. 학교수준별로는 초등학생이 중 고등학생보다 높은 평균을 보였고, 학업성취별로는 상집단이 중 하집단보다 평균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에게 대한 분석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초등학생이 중 고등학생보다,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어머니를 더욱 고맙게 생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부모가 고마운 이유

청소년이 부모에 대해 고맙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부모에 대한 다른 어떤 생각보다 강하였으

며, 그리고 부모에 대한 고마움은 초등학생과 중 고등학생 집단 모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2 참고). 이와 같이 청소년들이 부모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는 자유롭게 응답한 결과를 기초로 유사한 반응끼리 묶어서 항목을 만들고, 이러한 항목들을 조합하여 개념 범주로 정리하고, 빈도가 높은 순서대로 개념 범주들을 제시한 결과이다.

먼저 아버지가 고마운 이유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가족을 위한 고생’ 범주가 40.9%로 거의 과반수에 가까운 매우 높은 반응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아버지의 희생’ ‘정서적 지원’이 각각 20% 전후의 높은 반응을 나타내었다. 이외에도 ‘지도해 주심’이라든가 ‘부모님이므로’라는 범주가 각각 5%를 상회하는 반응으로 포함되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아버지를 고맙게 생각하는

표 4. 부모가 고마운 이유

<아버지>	전 체	학교수준			성 별	
		초	중	고	남	여
1. 가족을 위한 고생	292 (40.9)	97 (47.5)	102 (40.3)	93 (36.2)	119 (39.0)	166 (42.0)
①가족을 위해 일하심	195 (7.3)	56(27.5)	74 (29.2)	65 (25.3)	80(26.2)	111(28.1)
②보살펴주심	71 (9.9)	22(10.8)	23 (9.1)	26 (10.1)	28 (9.2)	41(10.4)
③용돈 주심/물건 사주심	26 (3.6)	19 (9.3)	5 (2.0)	2 (.8)	11 (3.6)	14 (3.5)
2. 아버지의 희생	186 (26.1)	44 (21.6)	74 (29.2)	68 (26.5)	84 (27.5)	101 (25.0)
①낳아주심/길러주심	150(21.0)	41(20.1)	55(21.7)	54(21.0)	69(22.6)	81(20.5)
②가족을 위한 헌신	36 (5.0)	3 (1.5)	19 (7.5)	14 (5.4)	15 (4.9)	20 (5.1)
3. 정서적 지원	141 (19.7)	45 (22.1)	50 (19.8)	46 (17.9)	55 (18.0)	84 (21.3)
①사랑해주심	46 (6.4)	18 (8.8)	14 (5.5)	14 (5.4)	17 (5.6)	29 (7.3)
②따뜻하게 대해주심	41 (5.7)	11 (5.4)	15 (5.9)	15 (5.8)	10 (3.3)	30 (7.6)
③이해해주심	29 (4.1)	3 (1.5)	13 (5.1)	13 (5.1)	13 (4.3)	16 (4.1)
④도와주심	12 (1.7)	3 (1.5)	5 (2.0)	4 (1.6)	7 (2.3)	5 (1.3)
⑤함께 해주심	10 (1.4)	7 (3.4)	3 (1.2)	-	6 (2.0)	3 (.8)
⑥칭찬해주심	3 (.4)	3 (1.5)	-	-	2 (.7)	1 (.3)
4. 지도해주심	42 (5.9)	11 (5.4)	18 (7.1)	13 (5.1)	25 (8.2)	14 (3.5)
①바른길로 인도해주심	30 (4.2)	7 (3.4)	11 (4.3)	12 (4.7)	18 (5.9)	9 (2.3)
②공부를 가르쳐주심	12 (1.7)	4 (2.0)	7 (2.8)	1 (.4)	7 (2.3)	5 (1.3)
5. 부모님이므로	41 (5.7)	3 (1.5)	5 (2.0)	33 (12.8)	17 (5.6)	23 (5.8)
6. 기타	12 (1.7)	4 (2.0)	4 (1.6)	4 (1.6)	5 (1.6)	7 (1.8)
전체	714(100.0)	204(100.0)	253(100.0)	257(100.0)	305(100.0)	395(100.0)

<어머니>	전 체	학교수준			성 별	
		초	중	고	남	여
1. 어머니의 희생	368 (50.3)	118 (56.7)	153 (58.6)	97 (36.9)	162 (51.6)	200 (49.5)
①낳아주심/ 길러주심	310(42.3)	109(52.4)	118(45.2)	83(31.6)	142(45.2)	164(40.6)
②가족을 위한 헌신	58 (7.9)	9 (4.3)	35(13.4)	14 (5.3)	20 (6.4)	36 (8.9)
2. 가족을 위한 고생	158 (21.6)	52 (25.0)	48 (18.4)	58 (22.1)	68 (21.7)	86 (21.3)
①보살펴주심	135(18.4)	43(20.7)	39(14.9)	53(20.2)	58(18.5)	73(18.1)
②가족을 위해 일하심	19 (2.6)	5 (2.4)	9 (3.4)	5 (1.9)	8 (2.5)	11 (2.7)
③용돈주심/ 물건 사주심	4 (.5)	4 (1.9)	-	-	2 (.6)	2 (.5)
3. 정서적 지원	124 (16.9)	21 (10.1)	44 (16.9)	59 (22.4)	52 (16.6)	70 (17.3)
①격려해주심	37 (5.1)	-	18 (6.9)	19 (7.2)	16 (5.1)	19 (4.7)
②사랑해주심	33 (4.5)	10 (4.8)	10 (3.8)	13 (4.9)	14 (4.5)	19 (4.7)
③나를 이해해주심	25 (3.4)	4 (1.9)	8 (3.1)	13 (4.9)	7 (2.2)	18 (4.5)
④격정해주심	23 (3.1)	2 (1.0)	8 (3.1)	13 (4.9)	13 (4.1)	10 (2.5)
⑤칭찬해주심	6 (.8)	5 (2.4)	-	1 (.4)	2 (.6)	4 (1.0)
4. 부모님이므로	59 (8.1)	5 (2.4)	9 (3.4)	45 (17.1)	20 (6.4)	37 (9.2)
5. 지도해주심	19 (2.6)	10 (4.8)	7 (2.8)	2 (.8)	11 (3.5)	8 (2.0)
①바른길로 인도해주심	10 (1.4)	3 (1.4)	5 (1.9)	2 (.8)	5 (1.6)	5 (1.2)
②공부를 지도해주심	9 (1.2)	7 (3.4)	2 (.8)	-	6 (1.9)	3 (.7)
6. 기타	4 (.5)	2 (1.0)	-	2 (.8)	1 (.3)	3 (.7)
전체	732(100.0)	208(100.0)	261(100.0)	263(100.0)	314(100.0)	404(100.0)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고생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며, 이외에도 아버지의 가족을 위한 희생이나 정서적 지원이 고마운 마음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수준별로 분석하였을 때에도 세 집단 모두에서 ‘가족을 위한 고생’에 대한 반응률이 가장 높았다. 세 집단간의 반응률을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보다 ‘가족을 위한 고생’을 많이 지적하였으며, 중·고등학생은 초등학생보다 오히려 ‘아버지의 희생’을 더 많이 지적하는 차이가 있었다. 성별로는 남학생이나 여학생 모두 동일한 반응경향을 보였는데, 전체 범주의 제시 순서와 동일하였다.

청소년들이 어머니를 고맙게 생각하는 이유를 보면, 우선 전체적으로 ‘어머니의 희생’에 대해 50.3%로 과반수가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가족을 위한 고생’과 ‘정서적 지원’이 20.0% 내외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부모님이므로’와 ‘지도

해 주심’이라는 반응이 포함되었다.

학교수준별로 보면 세 집단 모두 ‘어머니의 희생’에 대한 반응률이 가장 높은 점에서 공통적이었다. 학교수준별 집단을 상호 비교해 보면,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 비해 ‘정서적 지원’과 ‘부모님이므로’라는 반응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였다. 성별 분석 결과를 보면, 남녀 집단 모두 전체집단의 범주순서와 동일한 순서로 범주가 제시되었으며, 반응률도 거의 유사하였다.

부모에 대한 존경심

집단별 부모를 존경하는 정도의 차이

표 5는 하위집단별로 부모를 존경하는 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가정의 경제수준별과 학교수준별로 아버지에 대한 존경에서 $p < .001$ 수준의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학업성취별

표 5. 집단별 부모를 존경하는 정도의 차이

<아버지>					
독립변인	집단	N	M	SD	F/t
학교수준별	초	208	4.61 _b	.78	8.50 ***
	중	264	4.35 _a	1.01	
	고	279	4.26 _a	.99	
성별	남	337	4.46	.89	1.86
	녀	400	4.33	1.00	
학업성취별	상	98	4.67 _b	.65	5.60 **
	중	440	4.36 _a	.97	
	하	134	4.28 _a	1.04	
가정의 경제수준별	상	231	4.59 _b	.80	14.59 ***
	중	383	4.37 _b	.94	
	하	96	3.98 _a	1.18	

<어머니>					
독립변인	집단	N	M	SD	F/t
학교수준별	초	210	4.66 _b	.70	8.91 ***
	중	266	4.44 _a	.79	
	고	282	4.36 _a	.83	
성별	남	338	4.47	.76	.05
	녀	406	4.47	.80	
학업성취별	상	99	4.65 _b	.76	7.49 ***
	중	444	4.51 _b	.72	
	하	135	4.27 _a	.91	
가정의 경제수준별	상	234	4.65 _c	.69	12.56 ***
	중	386	4.43 _b	.79	
	하	96	4.20 _a	.87	

a b c는 Scheffe test결과임.

로는 $p < .01$ 수준의 차이가 있었다. Scheffe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거나 중간인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현저하게 높은 평균을 보였으며, 학교수준별로는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보다 평균이 높았다. 또한 학업성취별로는 상집단이 중집단이나 하집단보다 높은 평균을 보였다. 따라서 가정의 경제형편이 좋을수록,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보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일수록, 아버지를 더욱 존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머니를 존경하는 정도의 차이를 보면, 가정의 경제수준별, 학교수준별, 학업성취별로 모두 $p < .001$ 수준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각 하위집단별 평균을 Scheffe의 사후검증으로 비교해 보면, 가정의 경제수준 상집단이 중집단보다, 중집단은 하집단보다 높은 평균을 보였다. 또한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보다 높은 평균을, 학업성취 상집단과 중집단이 하집단보다 높은 평균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가정의 경제생활 수준이 높을수록,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보다,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어머니를 더욱 존경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에게 대한 분석 결과와도 일치하는 맥락이다.

부모를 존경하는 이유

표 6은 부모를 존경하는 이유를 질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아버지의 경우를 보면, ‘아버지의 희생’이 가장 높은 반응을 나타낸 대표적 범주이었다. ‘성실함’이 두 번째 범주로 나타났는데, 두 범주 모두 30% 이상의 높은 반응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혈연관계’와 ‘자애로움’ 범주가 모두 1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높은 교육열과 지도’ ‘존경하지 않음’이라는 범주가 각각 5%에 가까운 응답을 보였다. 여기에서 ‘아버지의 희생’이란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희생하

고 헌신하는 것, 또한 보살피 주고 길러주는 것 등을 대표적인 항목으로 포함하였다. ‘성실함’이라는 범주는 아버지의 성실함이 자랑스럽다든가, 아버지가 강인하고 모범이 된다는 같은 항목들을 함축하였다.

학교수준별로 비교한 결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는데, 초등학생 경우는 ‘부모님의 희생’에 대한 반응률이 가장 높았으며, 중·고등학생에 비해 아버지에게 대한 존경의 이유로 이것이 현저하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고등학생은 아버지의 성실함을 존경의 중요한 이유로 지적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초·중학생에 비해 높은 반응률을 보였다. 성별로는 전체집단의 범주 순서와 동일하게 나타남으로써, 남녀 집단 간에 아버지를 존경하는 이유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어머니를 존경하는 이유에 대한 전체집단의 반응 결과를 보면, ‘어머니의 희생’이 가장 대표적인 개념범주로 확인되었고, 또한 ‘성실함’이 30%에 가까운 비율을 보였다. 이외에도 ‘혈연관계’ 및 ‘자애로움’이 10% 이상의 반응을 보였으며, ‘높은 교육열과 지도’가 포함되었다. 즉 이러한 전체적인 반응 경향은 아버지에게 대한 분석에서와 동일하였다. 학교수준별로는 확실한 차이가 있었는데,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어머니의 희생’을 어머니에 대한 존경의 이유로 가장 많이 지적한 반면에, 고등학생의 경우는 ‘성실함’이 가장 대표적인 범주로 확인되었다. 한편 성별로 분석한 결과는, 남자와 여자 집단 모두 전체집단의 각 범주에 대한 반응율의 순서와 동일하였다.

표 6. 부모를 존경하는 이유

<아버지>	전체	학교수준			성별	
		초	중	고	남	여
1. 아버지의 희생	239 (34.7)	85 (43.1)	86 (33.9)	68 (28.6)	105 (35.5)	128 (33.8)
①가족을 위해 고생하심	104 (15.1)	37 (18.8)	35 (13.8)	32 (13.4)	47 (15.9)	55 (14.5)
②보살펴주심	46 (6.7)	22 (11.2)	18 (7.1)	6 (2.5)	13 (4.4)	30 (7.9)
③가족을 위해 헌신	45 (6.5)	9 (4.6)	14 (5.5)	22 (9.2)	21 (7.1)	23 (6.1)
④낳아주시심/길러주시심	44 (6.4)	17 (8.6)	19 (7.5)	8 (3.4)	24 (8.1)	20 (5.3)
2. 성실함	215 (31.2)	55 (27.9)	78 (30.7)	82 (34.5)	99 (33.4)	111 (29.3)
①자랑스러움	80 (11.6)	30 (15.2)	34 (13.4)	16 (6.7)	40 (13.5)	39 (10.3)
②성실함	79 (11.5)	13 (6.6)	30 (11.8)	36 (15.1)	32 (10.8)	43 (11.3)
③강인함	31 (4.5)	5 (2.5)	10 (3.9)	16 (6.7)	14 (4.7)	17 (4.5)
④모범이 됨	25 (3.6)	7 (3.6)	4 (1.6)	14 (5.9)	13 (4.4)	12 (3.2)
3. 혈연관계	82 (11.9)	16 (8.1)	21 (8.3)	45 (18.9)	31 (10.5)	49 (12.9)
①아버지이므로	68 (9.9)	11 (5.6)	15 (5.9)	42 (17.6)	22 (7.4)	44 (11.6)
②부모님이므로	14 (2.0)	5 (2.5)	6 (2.4)	3 (1.3)	9 (3.0)	5 (1.3)
4. 인자함	69 (10.0)	23 (11.7)	28 (11.0)	18 (7.6)	27 (9.1)	41 (10.8)
①자상함	24 (3.5)	7 (3.6)	12 (4.7)	5 (2.1)	10 (3.4)	14 (3.7)
②좋은 분	18 (2.6)	7 (3.6)	6 (2.4)	5 (2.1)	4 (1.4)	13 (3.4)
③이해심 많음	16 (2.3)	5 (2.5)	5 (2.0)	6 (2.5)	10 (3.4)	6 (1.6)
④용기/격려	11 (1.6)	4 (2.0)	5 (2.0)	2 (0.8)	3 (1.0)	8 (2.1)
5. 높은 교육열과 지도	33 (4.8)	10 (5.1)	11 (4.3)	12 (5.0)	12 (4.1)	21 (5.5)
①올바른 길로 인도	17 (2.5)	8 (4.1)	5 (2.0)	4 (1.7)	7 (2.4)	10 (2.6)
②조언	16 (2.3)	2 (1.0)	6 (2.4)	8 (3.4)	5 (1.7)	11 (2.9)
6. 존경하지 않음	30 (4.4)	6 (3.0)	16 (6.3)	8 (3.4)	11 (3.7)	19 (5.0)
7. 기타	21 (3.0)	2 (1.0)	14 (5.5)	5 (2.1)	11 (3.7)	10 (2.6)
①어머니를 위해주심	4 (0.6)	-	4 (1.6)	-	2 (0.7)	2 (0.5)
②기타	17 (2.5)	2 (1.0)	10 (3.9)	5 (2.1)	9 (3.0)	8 (2.1)
전체	689 (100.0)	197 (100.0)	254 (100.0)	238 (100.0)	296 (100.0)	379 (100.0)

<어머니>	전체	학교수준			성별	
		초	중	고	남	여
1. 어머니의 희생	272 (38.9)	83 (41.7)	113 (43.5)	76 (31.7)	124 (42.2)	144 (36.8)
①낳아주시심/길러주시심	99 (14.2)	41 (20.6)	37 (14.2)	21 (8.8)	50 (17.0)	49 (12.5)
②가족을 위해 고생하심	64 (9.2)	11 (5.5)	34 (13.1)	19 (7.9)	31 (10.5)	33 (8.4)
③가족을 위해 헌신하심	56 (8.0)	6 (3.0)	20 (7.7)	30 (12.5)	19 (6.5)	35 (9.0)
④보살펴주심	53 (7.6)	25 (12.6)	22 (8.5)	6 (2.5)	24 (8.2)	27 (6.9)
2. 성실함	191 (27.3)	47 (23.6)	62 (23.8)	82 (34.2)	80 (27.2)	107 (27.4)
①자랑스러움	53 (7.6)	18 (9.0)	21 (8.1)	14 (5.8)	26 (8.8)	27 (6.9)
②성실함	50 (7.2)	8 (4.0)	13 (5.0)	29 (12.1)	17 (5.8)	32 (8.2)
③강인함/인내심	33 (4.7)	6 (3.0)	10 (3.8)	17 (7.1)	13 (4.4)	19 (4.9)
④현명함	30 (4.3)	11 (5.5)	9 (3.5)	10 (4.2)	14 (4.8)	15 (3.8)
⑤모범이 됨	25 (3.6)	4 (2.0)	9 (3.5)	12 (5.0)	10 (3.4)	14 (3.6)
3. 혈연관계	88 (12.6)	18 (9.0)	28 (10.8)	42 (17.5)	31 (10.5)	55 (14.1)
①어머니이므로	77 (11.0)	13 (6.5)	25 (9.6)	39 (16.3)	25 (8.5)	50 (12.8)
②부모님이므로	11 (1.6)	5 (2.5)	3 (1.2)	3 (1.3)	6 (2.0)	5 (1.3)
4. 인자함	75 (10.7)	22 (11.1)	29 (11.2)	24 (10.0)	25 (8.5)	50 (12.8)
①이해심이 많음	27 (3.9)	11 (5.5)	10 (3.8)	6 (2.5)	5 (1.7)	22 (5.6)
②용기/격려	17 (2.4)	6 (3.0)	5 (1.9)	6 (2.5)	7 (2.4)	10 (2.6)
③타인배려	16 (2.3)	3 (1.5)	7 (2.7)	6 (2.5)	7 (2.4)	9 (2.3)
④웃음을 잃지 않음	15 (2.1)	2 (1.0)	7 (2.7)	6 (2.5)	6 (2.0)	9 (2.3)
5. 높은 교육열과 지도	51 (7.3)	25 (12.6)	16 (6.2)	10 (4.2)	23 (7.8)	26 (6.6)
①올바른 길로 인도	28 (4.0)	11 (5.5)	9 (3.5)	8 (3.3)	10 (3.4)	17 (4.3)
②높은 교육열	18 (2.6)	13 (6.5)	4 (1.5)	1 (0.4)	11 (3.7)	6 (1.5)
③조언	5 (0.7)	1 (0.5)	3 (1.2)	1 (0.4)	2 (0.7)	3 (0.8)
6. 기타	22 (3.1)	4 (2.0)	12 (4.6)	6 (2.5)	11 (3.7)	9 (2.3)
①존경하지 않음	11 (1.6)	3 (1.5)	7 (2.7)	1 (0.4)	4 (1.4)	6 (1.5)
②기타	11 (1.6)	1 (0.5)	5 (1.9)	5 (2.1)	7 (2.4)	3 (0.8)
전체	699 (100.0)	199 (100.0)	260 (100.0)	240 (100.0)	294 (100.0)	391 (100.0)

부모에 대한 죄송함

집단별 부모에 대한 죄송한 정도의 차이

표 7은 집단별로 부모에 대해 죄송한 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아버지에 대해 죄송하게 지각하는 정도는 학교수준별로만 $p < .05$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Scheffe검증 결과를 보면, 초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더 높은 평균을 나타냄으로써, 세 집단 중에 고등학생이 가장 아버지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였다.

한편 어머니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는 정도는 학교수준별과 성별로 $p < .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학업성취별로도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Scheffe검증을 통해 학교수준별 평균을 비교한 결과, 중 고등학생이 초등학생보다 어머니에 대한 죄송함의 평균이 더욱 높았으며, 학업성취별로는 하집단의 평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상집단, 중집단의 순서였다. 성별로

는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평균을 보였다. 그러므로 중 고등학생이 초등학생보다 어머니에 대해 죄송하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며,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죄송한 마음을 더 많이 갖고 있었다. 그리고 공부를 못한다고 지각하는 학생들이 잘하거나 중간정도 한다고 지각하는 학생들보다 어머니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 더욱 많았다.

부모에 대해 죄송한 이유

부모에 대해 죄송한 이유에 대해 자유반응한 결과를 분석한 것이 표 8이다. 아버지에 대해 전체 집단의 반응 결과를 보면 ‘부모 기대에 못 미침’이 30% 이상의 가장 높은 반응률을 나타내고, 그 다음으로 ‘순종하지 않음’도 비슷한 반응률을 보였다. 이외에 ‘학업 소홀함’과 ‘효도를 못함’이 15~20% 사이의 반응률을 보였다. 여기에서 ‘부모 기대에 못 미침’이라는 범주에는, 말씀을 피운다든가, 부모님을 속상하게 한다든가, 걱정을 끼친다는 항목들이 대표적으로 포함되었다. 또한

표 7. 집단별 부모에 대해 죄송한 정도의 차이

<아버지>					
독립변인	집단	N	M	SD	F/t
학교수준별	초	210	3.81 _a	1.15	4.39 *
	중	265	4.03 _{ab}	1.11	
	고	282	4.09 _b	.98	
성별	남	339	3.93	1.14	-1.59
	녀	403	4.05	1.02	
학업성취별	상	99	3.99	1.05	2.03
	중	443	3.93	1.10	
	하	135	4.15	1.03	
가정의 경제수준별	상	233	4.03	1.08	2.42
	중	386	4.04	1.04	
	하	96	3.78	1.17	

<어머니>					
독립변인	집단	N	M	SD	F/t
학교수준별	초	210	3.90 _a	.97	9.10 ***
	중	266	4.22 _b	.93	
	고	283	4.22 _b	.85	
성별	남	340	4.00	1.01	-3.55 ***
	녀	404	4.25	.82	
학업성취별	상	99	4.12 _{ab}	.93	3.26 *
	중	444	4.08 _a	.92	
	하	136	4.31 _b	.88	
가정의 경제수준별	상	234	4.17	.93	.49
	중	387	4.15	.88	
	하	95	4.06	1.00	

a b c는 Scheffe test결과임.

표 8. 부모에 대해 죄송한 이유

아버지	전체	학교수준			성별	
		초	중	고	남	여
1. 부모 기대에 못 미침	218 (30.8)	58 (28.7)	63 (25.1)	97 (38.0)	89 (29.3)	124 (31.6)
①기대에 미치지 못함	88 (12.4)	7 (3.5)	26 (10.4)	55 (21.6)	34 (11.2)	51 (13.0)
②말썽피움	39 (5.5)	16 (7.9)	15 (6.0)	8 (3.1)	16 (5.3)	22 (5.6)
③속상하게 함	36 (5.1)	5 (2.5)	14 (5.6)	17 (6.7)	14 (4.6)	21 (5.4)
④걱정 끼침	27 (3.8)	4 (2.0)	6 (2.4)	17 (6.7)	15 (4.9)	12 (3.1)
⑤형제자매간 싸움	11 (1.6)	9 (4.5)	2 (.8)	-	3 (1.0)	8 (2.0)
⑥피곤하게 함	10 (1.4)	10 (5.0)	-	-	2 (.7)	8 (2.0)
⑦심약함	7 (1.0)	7 (3.5)	-	-	5 (1.6)	2 (.5)
2. 순종하지 않음	191 (27.0)	76 (37.6)	73 (29.1)	42 (16.5)	73 (24.0)	117 (29.8)
①말을 안 들음	95 (13.4)	33 (16.3)	35 (13.9)	27 (10.6)	39 (12.8)	55 (14.0)
②짜증냄	28 (4.0)	6 (3.0)	15 (6.0)	7 (2.7)	10 (3.3)	18 (4.6)
③때를 씌움	20 (2.8)	10 (5.0)	10 (4.0)	-	9 (3.0)	11 (2.8)
④대들음	19 (2.7)	7 (3.5)	8 (3.2)	4 (1.6)	8 (2.6)	11 (2.8)
⑤버릇없이 행동함	17 (2.4)	10 (5.0)	4 (1.6)	3 (1.2)	5 (1.6)	12 (3.1)
⑥말대꾸 함	12 (1.7)	10 (5.0)	1 (.4)	1 (.4)	2 (.7)	10 (2.6)
3. 학업 소홀함	135 (19.1)	26 (12.9)	60 (23.9)	49 (19.2)	79 (26.0)	53 (13.5)
①공부를 못함	63 (8.9)	7 (3.5)	27 (10.8)	29 (11.4)	30 (9.9)	32 (8.2)
②공부를 안 함	49 (6.9)	10 (5.0)	22 (8.8)	17 (6.7)	29 (9.5)	18 (4.6)
③놀기만 함	20 (2.8)	7 (3.5)	10 (4.0)	3 (1.2)	18 (5.9)	2 (.5)
④책읽기를 안 함	3 (.4)	2 (1.0)	1 (.4)	-	2 (.7)	1 (.3)
4. 효도를 못함	110 (15.5)	21 (10.4)	42 (16.7)	47 (18.4)	43 (14.1)	64 (16.3)
①효도를 못함	59 (8.3)	6 (3.0)	21 (8.4)	32 (12.5)	22 (7.2)	35 (8.9)
②고생하심	30 (4.2)	4 (2.0)	15 (6.0)	11 (4.3)	13 (4.3)	16 (4.1)
③도와드리지 못함	12 (1.7)	4 (2.0)	5 (2.0)	3 (1.2)	4 (1.3)	8 (2.0)
④정리정돈 미흡	5 (.7)	4 (2.0)	1 (.4)	-	3 (1.0)	2 (.5)
⑤안마해드리지 못함	4 (.6)	3 (1.5)	-	1 (.4)	1 (.3)	3 (.8)
5. 없음	23 (3.2)	10 (5.0)	7 (2.8)	6 (2.4)	10 (3.3)	13 (3.3)
6. 항상 죄송함	12 (1.7)	-	-	12 (4.7)	4 (1.3)	8 (2.0)
7. 기타	19 (2.7)	11 (5.4)	6 (2.4)	2 (.8)	6 (2.0)	13 (3.3)
전체	708 (100.0)	202 (100.0)	251 (100.0)	255 (100.0)	304 (100.0)	392 (100.0)

어머니	전체	학교수준			성별	
		초	중	고	남	여
1. 순종하지 않음	307 (42.6)	96 (46.8)	93 (36.5)	118 (45.2)	121 (39.3)	183 (45.6)
①말을 안 들음	147 (20.4)	64 (31.2)	47 (18.4)	36 (13.8)	66 (21.4)	81 (20.2)
②기대에 미치지 못함	67 (9.8)	-	17 (6.7)	54 (20.7)	32 (10.4)	37 (9.2)
③짜증냄	48 (6.7)	10 (4.9)	18 (7.1)	20 (7.7)	10 (3.2)	37 (9.2)
④대들음	13 (1.8)	5 (2.4)	3 (1.2)	5 (1.9)	7 (2.3)	6 (1.5)
⑤때를 씌움	12 (1.7)	6 (2.9)	6 (2.4)	-	5 (1.6)	7 (1.7)
⑥말대꾸 함	10 (1.4)	8 (3.9)	2 (.8)	-	-	10 (2.5)
⑦심부름 안함	6 (.8)	3 (1.5)	-	3 (1.1)	1 (.3)	5 (1.2)
2. 부모 기대에 못 미침	157 (21.8)	54 (26.3)	55 (21.6)	48 (18.4)	61 (19.8)	94 (23.4)
①말썽피움	62 (8.6)	19 (9.3)	23 (9.0)	20 (7.7)	24 (7.8)	37 (9.2)
②속상하게 함	42 (5.8)	12 (5.9)	18 (7.1)	12 (4.6)	16 (5.2)	26 (6.5)
③걱정 끼침	27 (3.7)	2 (1.0)	9 (3.5)	16 (6.1)	12 (3.9)	14 (3.5)
④형제자매간 싸움	21 (2.9)	17 (8.3)	4 (1.6)	-	6 (1.9)	15 (3.7)
⑤심약함	5 (.7)	4 (2.0)	1 (.4)	-	3 (1.0)	2 (.5)
3. 학업 소홀함	135 (18.7)	31 (15.1)	55 (21.6)	49 (18.8)	80 (26.0)	51 (12.7)
①공부를 못함	53 (7.4)	3 (1.5)	25 (9.8)	25 (9.6)	29 (9.4)	24 (6.0)
②공부를 안 함	49 (6.8)	12 (5.9)	19 (7.5)	18 (6.9)	26 (8.4)	19 (4.7)
③놀기만 함	26 (3.6)	9 (4.4)	11 (4.3)	6 (2.3)	20 (6.5)	6 (1.5)
④숙제/책읽기 안함	7 (1.0)	7 (3.4)	-	-	5 (1.6)	2 (.5)
4. 효도를 못함	98 (13.6)	16 (7.8)	48 (18.8)	34 (13.0)	37 (12.0)	58 (14.5)
①효도를 못함	53 (7.4)	6 (2.9)	27 (10.6)	20 (7.7)	22 (7.1)	30 (7.5)
②고생하심	20 (2.8)	-	14 (5.5)	6 (2.3)	11 (3.6)	8 (2.0)
③도와드리지 못함	17 (2.4)	3 (1.5)	7 (2.7)	7 (2.7)	3 (1.0)	13 (3.2)
④정리정돈 미흡	8 (1.1)	7 (3.4)	-	1 (.4)	1 (.3)	7 (1.7)
5. 항상 죄송함	10 (1.4)	-	-	10 (3.8)	4 (1.3)	6 (1.5)
6. 기타	14 (1.9)	8 (3.9)	4 (1.6)	2 (.8)	5 (1.6)	9 (2.2)
전체	721 (100.0)	205 (100.0)	255 (100.0)	261 (100.0)	308 (100.0)	401 (100.0)

‘순종하지 않음’ 범주에는 부모님의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항목이고 이외에 짜증을 낸다든가 부모님에게 때를 쓰고 대든 경우를 포함하였다. 그리고 ‘학업에 소홀함’이란 의미는 공부를 못하거나 또는 공부를 안 하고 놀기만 하는 경우를 의미하였다. ‘효도를 못함’이라는 범주는 부모님이 고생하시는데 제대로 도와드리지도 못한다는 뜻이 강하였다.

학교수준별로 보았을 때,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고등학생은 아버지에게 대해 죄송한 이유로서,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가장 많이 하였고, 동시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보다 훨씬 그런 생각을 많이 하였다. 그러나 초등학생 경우는 부모님에게 죄송한 이유로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응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결과적으로 중 고등학생보다 이러한 생각을 현저하게 많이 하였다.

성별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남자 집단은 아버지에게 죄송한 가장 현저한 이유가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침’이고, 그 다음으로 ‘학업에 소홀함’ ‘순종하지 않음’의 순서로 나타났다. 여자 집단의 경우에 남자와 마찬가지로 가장 현저한 이유로서 ‘부모 기대에 못 미침’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음’이 두 번째로 높은 반응률을 나타내고, 그 다음으로 ‘학업에 소홀함’이 지적되었다. 그러므로 여자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지 않아 죄송하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고, 남자는 공부에 소홀하여 죄송하다는 생각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에 대해 죄송한 이유를 보면, 가장 대표적인 범주는 ‘순종하지 않음’이었으며, 40% 이상이 이와 같이 반응하였다. 그 다음으로 ‘부모 기대에 못 미침’이 20% 이상의 반응률을 보이고, ‘학업 소홀함’과 ‘효도를 못함’이 각각 10% 이상

의 반응률을 보였다. 학교수준별로는 초 중 고등학생 모두 ‘순종하지 않음’에 대한 반응률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중 고등학생이 초등학생보다 어머니에게 효도를 못해 죄송하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였다. 성별로는 남녀 모두 어머니에게 순종하지 않아 죄송하다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 점에서 공통적이었다. 그러나 남자는 두 번째로 학업에 소홀해 죄송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였으나, 여자는 부모의 기대에 못 미쳐 죄송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였다.

부모와의 친밀감

집단별 부모와 가까운 정도의 차이

부모와의 친밀감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부모와 얼마나 가깝다고 지각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표 9에 제시된 바처럼, 아버지에게 대해서는 학교수준별, 가정의 경제수준별, 성별로 모두 $p < .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를 보면, 학교수준별로는 초등학생이 가장 높은 평균을 보이고, 그 다음으로 중학생, 고등학생의 순서로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상집단이 중집단보다, 중집단이 하집단보다 높은 평균을 나타내었다. 학업성취별로는 상집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을 중집단, 하집단의 순서였다. 그러므로 초등학생이 아버지와 가장 가깝게 느끼고,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점차 성장해 감에 따라 친밀감을 느끼는 정도가 느슨해진다고 할 수 있다.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경제수준이 높은 가정의 자녀일수록 아버지와 가깝게 지내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학업성취별로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일수록 아버지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어머니 경우를 보면, 가정의 경제수준별

표 9. 집단별 부모와 가까운 정도의 차이

<아버지>						<어머니>					
독립변인	집단	N	M	SD	F/t	독립변인	집단	N	M	SD	F/t
학교수준별	초	210	4.44 _c	1.00	33.03 ***	학교수준별	초	208	4.60 _b	.89	8.44 ***
	중	265	3.91 _b	1.21			중	266	4.59 _b	.74	
	고	282	3.62 _a	1.11			고	283	4.35 _a	.82	
성별	남	338	4.01	1.16	1.49	성별	남	339	4.49	.84	-.34
	녀	405	3.88	1.18			녀	404	4.51	.82	
학업성취별	상	99	4.29 _b	.94	8.09 ***	학업성취별	상	99	4.76 _b	.57	5.25 **
	중	443	3.97 _{ab}	1.15			중	444	4.48 _a	.84	
	하	136	3.68 _a	1.29			하	135	4.45 _a	.84	
가정의 경제수준별	상	234	4.24 _c	1.06	16.59 ***	가정의 경제수준별	상	235	4.70 _b	.68	12.55 ***
	중	387	3.87 _b	1.11			중	385	4.44 _a	.81	
	하	95	3.47 _a	1.39			하	96	4.27 _a	1.00	

a b c는 Scheffe test결과임.

과 학교수준별로는 $p < .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학업성취별로는 $p < .01$ 수준에서의 차이를 보였다. Scheffe 검증 결과에 의하면,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상집단이 중 하집단보다, 학교수준별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학업성취별로는 상집단이 중집단이나 하집단보다 더욱 높은 평균을 나타내었다. 이는 가정의 경제적 여건이 좋을수록,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도, 학업성적이 좋은 학생일수록, 어머니와 더욱 가깝게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아버지에 대한 분석결과와 전반적으로 일치한다.

부모와 가까운 이유

부모와 가까운 이유에 대해 초, 중, 고등학생들의 반응을 질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표 10이다. 아버지에 대해 전체의 반응 결과를 보면, ‘편안함’이 가장 대표적인 범주로 나타났으나, ‘혈연관계’ 및 ‘나를 이해해 줌’ 모두 비슷한 반응률을

나타내었다. 네 번째 범주로서 ‘가깝게 느끼지 않음’이 15.7%이므로 10명 중에서 한 두 명 정도가 아버지에 대해 가깝게 느끼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희생’도 10% 이상의 반응률을 보였으며, 이외에도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음’이 포함되었다. 여기에서 ‘편안함’의 의미는 함께 잘 놀아주고, 친구같이 친근하다는 뜻을 내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수준별 반응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었는데, 초등학생 경우는 아버지가 가까운 중요한 이유로 ‘혈연관계’(32.8%)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고, 그 다음으로 ‘편안함’ ‘아버지의 희생’ 순서로 나타났다. 반면에 중학생 경우는 ‘가깝게 느끼지 않음’(20.3%)이 가장 높은 반응을 보이고, 그 다음으로 ‘나를 이해해 줌’ ‘혈연관계’의 순서로 나타났다. 한편 고등학생 경우는 ‘나를 이해해 줌’(28.6%)이 가장 높은 반응률을 보이고, 그 다

표 10. 부모와 가까운 이유

아버지	전체	학교수준			성별	
		초	중	고	남	여
1. 편안함	139 (21.4)	43 (23.1)	37 (15.4)	59 (26.3)	56 (20.6)	80 (21.9)
①잘 놀아주심	56 (8.6)	18 (9.7)	17 (7.1)	21 (9.4)	26 (9.6)	28 (7.7)
②편안함	41 (6.3)	15 (8.1)	6 (2.5)	20 (8.9)	14 (5.1)	27 (7.4)
③친근함	23 (3.5)	6 (3.2)	9 (3.7)	8 (3.6)	11 (4.0)	11 (3.0)
④친구 같음	19 (2.9)	4 (2.2)	5 (2.1)	10 (4.5)	5 (1.8)	14 (3.8)
2. 혈연관계	135 (20.7)	61 (32.8)	39 (16.2)	35 (15.6)	57 (21.0)	74 (20.3)
①아버지이므로	75 (11.5)	33 (17.7)	21 (8.7)	21 (9.4)	29 (10.7)	42 (11.5)
②가족이므로	47 (7.2)	20 (10.8)	13 (5.4)	14 (6.3)	23 (8.5)	24 (6.6)
③부모님이므로	13 (2.0)	8 (4.3)	5 (2.1)	-	5 (1.8)	8 (2.2)
3. 나를 이해해줌	128 (19.7)	19 (10.2)	45 (18.7)	64 (28.6)	55 (20.2)	70 (19.2)
①대화	59 (9.1)	2 (1.1)	26 (10.8)	31 (13.8)	20 (7.4)	37 (10.1)
②이해/신뢰	24 (3.7)	5 (2.7)	3 (1.2)	16 (7.1)	10 (3.7)	13 (3.6)
③조언/격려	20 (3.1)	9 (4.8)	3 (1.2)	8 (3.6)	11 (4.0)	9 (2.5)
④세대차이 없음	15 (2.3)	2 (1.1)	6 (2.5)	7 (3.1)	8 (2.9)	7 (1.9)
⑤고민상담	10 (1.5)	1 (.5)	7 (2.9)	2 (.9)	6 (2.2)	4 (1.1)
4. 가깝게 느끼지 않음	102 (15.7)	13 (7.0)	49 (20.3)	40 (17.9)	43 (15.8)	59 (16.2)
5. 아버지의 희생	82 (12.6)	34 (18.3)	35 (14.5)	13 (5.8)	30 (11.0)	48 (13.2)
①보살펴주심	69 (10.6)	31 (16.7)	28 (11.6)	10 (4.5)	22 (8.1)	44 (12.1)
②날아주심/길러주심	13 (2.0)	3 (1.6)	7 (2.9)	3 (1.3)	8 (2.9)	4 (1.1)
6.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음	40 (6.1)	4 (2.2)	30 (12.4)	6 (2.7)	19 (7.0)	21 (5.8)
7. 기타	25 (3.8)	12 (6.5)	6 (2.5)	7 (3.1)	12 (4.4)	13 (3.6)
전체	651 (100.0)	186 (100.0)	241 (100.0)	224 (100.0)	272 (100.0)	365 (100.0)

어머니	전체	학교수준			성별	
		초	중	고	남	여
1. 나를 이해해줌	190 (27.2)	28 (14.4)	59 (22.6)	103 (42.4)	61 (20.7)	123 (31.6)
①대화	109 (15.6)	6 (3.1)	35 (13.4)	68 (28.0)	39 (13.2)	67 (17.2)
②고민상담	41 (5.9)	11 (5.7)	11 (4.2)	19 (7.8)	10 (3.4)	30 (7.7)
③이해/신뢰	27 (3.9)	9 (4.6)	7 (2.7)	11 (4.5)	10 (3.4)	15 (3.9)
④세대차이 없음	13 (1.9)	2 (1.0)	6 (2.3)	5 (2.1)	2 (.7)	11 (2.8)
2. 편안함	156 (22.3)	36 (18.6)	52 (19.9)	68 (28.0)	52 (17.6)	103 (26.5)
①친구 같음	63 (9.0)	10 (5.2)	18 (6.9)	35 (14.4)	16 (5.4)	47 (12.1)
②편안함	44 (6.3)	17 (8.8)	17 (6.5)	10 (4.1)	18 (6.1)	26 (6.7)
③친근함	31 (4.4)	8 (4.1)	11 (4.2)	12 (4.9)	18 (6.1)	12 (3.1)
④같은 여자	18 (2.6)	1 (.5)	6 (2.3)	11 (4.5)	-	18 (4.6)
3. 혈연관계	120 (17.2)	54 (27.8)	38 (14.6)	28 (11.5)	54 (18.3)	62 (15.9)
①어머니이므로	59 (8.5)	28 (14.4)	18 (6.9)	13 (5.3)	31 (10.5)	26 (6.7)
②가족이므로	48 (6.9)	17 (8.8)	16 (6.1)	15 (6.2)	18 (6.1)	28 (7.2)
③부모님이므로	13 (1.9)	9 (4.6)	4 (1.5)	-	5 (1.7)	8 (2.1)
4. 어머니의 희생	103 (14.8)	48 (24.7)	40 (15.3)	15 (6.2)	57 (21.0)	45 (11.6)
①보살펴주심	77 (11.0)	40 (20.6)	27 (10.3)	10 (4.1)	39 (13.2)	38 (9.8)
②날아주심/길러주심	26 (3.7)	8 (4.1)	13 (5.0)	5 (2.1)	18 (6.1)	7 (1.8)
5.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음	99 (14.2)	20 (10.3)	57 (21.8)	22 (9.1)	56 (19.0)	41 (10.5)
6. 가깝게 느끼지 않음	20 (2.9)	4 (2.1)	11 (4.2)	5 (2.1)	8 (2.7)	12 (3.1)
7. 기타	10 (1.4)	4 (2.1)	4 (1.5)	2 (.8)	7 (2.4)	3 (.8)
전체	698 (100.0)	194 (100.0)	261 (100.0)	243 (100.0)	295 (100.0)	389 (100.0)

음으로 ‘편안함’도 20% 이상의 높은 반응률을 나타내었으며, 세 번째로 ‘가깝게 느끼지 않음’이 추가되었다. 그러므로 초등학생에 비해 중·고등학생들이 아버지를 가깝게 느끼지 않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어린 초등학생일수록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깝다고 하는 혈연관계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매우 많았다. 그러나 중학생 시기가 되면 아버지와의 거리감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생 시기가 되었을 때 다시 아버지와 가까움을 느끼게 되는데, 초등학생 시기와 같은 혈연관계에 초점을 두기보다 ‘나를 이해해 줌’과 같은 반응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에 ‘혈연관계’ ‘편안함’ ‘나를 이해해 줌’의 순서로 범주가 나타나고, 여자의 경우에 ‘편안함’ ‘혈연관계’ ‘나를 이해해 줌’의 순서로 범주가 제시되었다. 그러나 세 범주 간에 차이가 거의 없는 관계로, 특별히 성차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어머니와 가까운 이유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면 ‘나를 이해해 줌’이 가장 대표적인 범주로 나타났고, ‘편안함’도 20% 이상의 높은 반응률을 보였다. 이외에 ‘혈연관계’ ‘어머니의 희생’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음’이 10~20% 사이의 값을 보였고, ‘가깝게 느끼지 않음’은 2.9% 이었다. 따라서 어머니를 가깝게 느끼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머니라는 맹목적인 혈연관계보다도, 이해해 주고 편안하게 대해 주는 어머니의 태도와 더욱 관련이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보다 어머니에 대해 가깝지 않다고 지각하는 자녀가 훨씬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교수준별 분석 결과는, 초등학생의 경우 ‘혈연관계’에 대한 반응이 가장 높고 ‘어머니의 희생’도 20% 이상의 높은 반응률을 보였다. 중학생은 ‘나를 이해해 줌’과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음’이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으며, 고등학생에서

는 ‘나를 이해해 줌’에 대한 반응률이 반수(42.4%)에 가까웠고 그 다음으로 ‘편안함’(28.0%)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그러므로 초등학생 시기에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무조건 즉 혈연관계이기 때문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으나, 고등학생 시기가 되면 대화나 고민 상담 등 자기의 문제를 이해해 주기 때문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성별로는 남자 경우에 ‘어머니의 희생’과 ‘나를 이해해 줌’이 모두 20% 이상의 반응을 보였고, 여자의 경우는 ‘나를 이해해 줌’에 30% 이상을, 그 다음으로 ‘편안함’에 대해서도 20% 이상의 반응률을 보였다.

부모와의 갈등

집단별 부모와 갈등을 느끼는 정도의 차이

표 11은 집단별 부모와 갈등을 느끼는 정도의 차이를 F-검증과 t-검정한 결과이다. 아버지와의 갈등 정도를 보면, 학교수준별, 가정의 경제수준별, 학업성취별로 $p < .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성별로도 의미있는 차이($p < .05$)를 보였다. Scheffe검증 결과를 보면, 초등학생보다 중학생이,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더 높은 평균을 보임으로써, 학년이 증가할수록 아버지와 갈등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상집단보다 중·하집단이 더 높은 평균을 보임으로써,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일수록 부모와 더 많은 갈등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업성취별로는 상집단보다 중·하집단이 더 높은 평균을 나타냄으로써, 공부를 못하는 학생일수록 부모와 갈등을 더 많이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은 평균을 보임으로써, 딸이 아들보다 아버지와 더 많은 갈등을 갖고 있었다.

표 11. 집단별 부모와 갈등을 느끼는 정도의 차이

<아버지>						<어머니>					
독립변인	집단	N	M	SD	F/t	독립변인	집단	N	M	SD	F/t
학교수준별	초	210	1.93 _a	1.30	26.33 ***	학교수준별	초	210	1.96 _a	1.21	25.87 ***
	중	264	2.30 _b	1.34			중	265	2.47 _b	1.26	
	고	283	2.76 _c	1.14			고	283	2.73 _b	1.08	
성별	남	339	2.25	1.31	-2.35 *	성별	남	339	2.32	1.22	-2.35 *
	녀	404	2.47	1.29			녀	405	2.53	1.22	
학업성취별	상	99	1.81 _a	1.16	10.72 ***	학업성취별	상	99	2.03 _a	1.10	7.79 ***
	중	443	2.40 _b	1.29			중	444	2.45 _b	1.23	
	하	135	2.53 _b	1.27			하	135	2.65 _b	1.21	
가정의 경제수준별	상	233	2.02 _a	1.23	13.01 ***	가정의 경제수준별	상	234	2.26 _a	1.26	4.14 *
	중	386	2.52 _b	1.29			중	386	2.55 _a	1.19	
	하	96	2.60 _b	1.28			하	96	2.49 _a	1.16	

a b c는 Scheffe test 결과임.

한편 어머니와의 갈등을 보면, 학교수준별과 학업성취별로 $p < .001$ 수준에서 매우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고, 가정의 경제수준별과 성별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p < .05$). Scheffe검증 결과, 학교수준별로는 초등학생보다 중 고등학생의 평균이 높으므로, 중 고등학생이 어머니와 더욱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학업성취별로는 상집단보다 중 하집단의 평균이 더 높으므로, 공부를 잘 하지 못하는 학생일수록 어머니와의 갈등이 더 많았다. 또한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상집단보다 중 하집단의 평균이 더 높아,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일수록 어머니와의 갈등이 많았다. 그리고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은 평균을 보임으로써, 대체로 딸이 아들보다 어머니와 더 많은 갈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머니와의 갈등에 관련된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와의 갈등에 대한 결과와 전반적으로 일치하였다.

부모와 갈등을 느끼는 이유

표 12는 부모와 갈등을 느끼는 이유를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별로 정리한 결과이다. 아버지와 갈등을 느끼는 이유를 적으라고 질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이유를 쓰지 않고 ‘없음’이라고 반응한 경우가 36.8%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갈등의 이유 중에서는 ‘세대차이’ 범주가 20%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많이 지적되었는데, 의견이 다르고 이해해 주지 못하며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한다는 반응이 대표적이었다. 두 번째로 많이 지적된 범주는 ‘학업문제’였는데, 10명 중 1~2명은 학업문제로 인해 아버지와 갈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아버지의 잘못된 행동’이라든가 아버지의 ‘야단치심’ 또는 말을 안 들어 화나게 한 ‘나의 잘못’이 범주로 포함되었다. ‘아버지의 잘못된 행동’에는 아버지의 늦은 귀가, 아버지의 지나친 술 담배, 나를 귀찮게 하심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표 12. 부모와 갈등을 느끼는 이유

아버지	전체	학교수준			성별	
		초	중	고	남	여
1. 없음	224 (36.8)	92 (56.4)	88 (40.2)	44 (19.5)	108 (42.5)	111 (32.4)
①없음	208 (34.2)	87 (53.4)	77 (35.2)	44 (19.5)	100 (39.4)	105 (30.6)
②나를 아껴주심	16 (2.6)	5 (3.1)	11 (5.0)	-	8 (3.1)	6 (1.7)
2. 세대차이	151 (24.8)	12 (7.4)	62 (28.3)	77 (34.1)	43 (16.9)	105 (30.6)
①세대차 느낌/의견이 다름	104 (17.1)	7 (4.3)	38 (17.4)	59 (26.1)	27 (10.6)	75 (21.9)
②나를 이해하지 못함	24 (3.9)	-	13 (5.9)	11 (4.9)	7 (2.8)	17 (5.0)
③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함	23 (3.8)	5 (3.1)	11 (5.0)	7 (3.1)	9 (3.5)	13 (3.8)
3. 학업문제	88 (14.5)	4 (2.5)	41 (18.7)	43 (19.0)	42 (16.5)	45 (13.1)
4. 아버지의 잘못된 행동	36 (5.9)	16 (9.8)	12 (5.5)	8 (3.5)	18 (7.1)	17 (5.0)
①기타 잘못	11 (1.8)	3 (1.8)	4 (1.8)	4 (1.8)	8 (3.1)	3 (.9)
②늦은 귀가	9 (1.5)	5 (3.1)	3 (1.4)	1 (.4)	5 (2.0)	3 (.9)
③술/담배	9 (1.5)	2 (1.2)	4 (1.8)	3 (1.3)	3 (1.2)	6 (1.7)
④귀찮게 하심	7 (1.2)	6 (3.7)	1 (.5)	-	2 (.8)	5 (1.5)
5. 야단치심	34 (5.6)	19 (11.7)	6 (2.7)	9 (4.0)	11 (4.3)	22 (6.4)
①혼내심	14 (2.3)	10 (6.1)	-	4 (1.8)	6 (2.4)	7 (2.0)
②잔소리하심	11 (1.8)	4 (2.5)	2 (.9)	5 (2.2)	3 (1.2)	8 (2.3)
③화내심	9 (1.5)	5 (3.1)	4 (1.8)	-	2 (.8)	7 (2.0)
6. 나의 잘못	34 (5.6)	9 (5.5)	8 (3.7)	17 (7.5)	19 (7.5)	15 (4.4)
①내가 말을 안 들음	28 (4.6)	5 (3.1)	8 (3.7)	15 (6.6)	17 (6.7)	11 (3.2)
②화나시게 함	6 (1.0)	4 (2.5)	-	2 (.9)	2 (.8)	4 (1.2)
7. 대화/접촉부족	16 (2.6)	-	-	16 (7.1)	4 (1.6)	12 (3.5)
8. 편애	6 (1.0)	4 (2.5)	2 (.9)	-	2 (.8)	4 (1.2)
9. 기타	19 (3.1)	7 (4.3)	-	12 (5.3)	7 (2.8)	12 (3.5)
전체	608 (100.0)	163 (100.0)	219 (100.0)	226 (100.0)	254 (100.0)	343 (100.0)

어머니	전체	학교수준			성별	
		초	중	고	남	여
1. 없음	202 (32.0)	81 (47.6)	78 (33.9)	43 (18.5)	100 (37.0)	99 (28.2)
①없음	188 (29.7)	78 (45.9)	67 (29.1)	43 (18.5)	88 (32.6)	97 (27.6)
②나를 아껴주심	14 (2.2)	3 (1.8)	11 (4.8)	-	12 (4.4)	2 (.6)
2. 세대차이	178 (28.2)	21 (12.4)	75 (32.6)	82 (35.3)	69 (25.6)	107 (30.5)
①세대차 느낌/의견이 다름	128 (20.3)	12 (7.1)	51 (22.2)	65 (28.0)	50 (18.5)	77 (21.9)
②나를 이해하지 못함	30 (4.7)	5 (2.9)	13 (5.7)	12 (5.2)	12 (4.4)	18 (5.1)
③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함	20 (3.2)	4 (2.4)	11 (4.8)	5 (2.2)	7 (2.6)	12 (3.4)
3. 학업문제	114 (18.0)	13 (7.6)	42 (18.3)	59 (25.4)	48 (17.8)	62 (17.7)
4. 야단치심	54 (8.5)	26 (15.3)	15 (6.5)	13 (5.6)	22 (8.1)	32 (9.1)
①잔소리하심	31 (4.9)	7 (4.1)	12 (5.2)	12 (5.2)	9 (3.3)	22 (6.3)
②혼내심	16 (2.5)	14 (8.2)	1 (.4)	1 (.4)	10 (3.7)	6 (1.7)
③화내심	7 (1.1)	5 (2.9)	2 (.9)	-	3 (1.1)	4 (1.1)
5. 나의 잘못	47 (7.4)	15 (8.8)	9 (3.9)	23 (9.9)	21 (7.8)	24 (6.8)
①내가 말을 안 들음	40 (6.3)	9 (5.3)	9 (3.9)	22 (9.5)	19 (7.0)	19 (5.4)
②화나시게 함	7 (1.1)	6 (3.5)	-	1 (.4)	2 (.7)	5 (1.4)
6. 편애	12 (1.9)	8 (4.7)	3 (1.3)	1 (.4)	4 (1.5)	8 (2.3)
7. 기타	25 (4.0)	6 (3.5)	8 (3.5)	11 (4.7)	6 (2.2)	19 (5.4)
전체	632 (100.0)	170 (100.0)	230 (100.0)	232 (100.0)	270 (100.0)	351 (100.0)

학교수준별로 보면, 초등학생은 아버지와 갈등을 느끼는 이유가 ‘없다’고 반응한 경우가 56.4%로 과반수를 훨씬 넘었다. 둘째로는 아버지의 ‘야단치심’으로서, 아버지가 혼내고 잔소리하고 화내기 때문에 갈등이 있다고 하였다. 세 번째로는 ‘아버지의 잘못된 행동’이 지적되었다. 중학생도 초등학생과 마찬가지로 ‘없음’의 반응(40.2%)이 가장 많았으나, 초등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반응률이 낮았다. 그 대신에 초등학생보다 현저하게 증가한 범주로서, 두 번째로 높은 반응률을 보인 ‘세대차이’(28.3%)와 세 번째 범주인 ‘학업문제’(18.7%) 이었다. 그러므로 중학생 시기에 아버지와 갈등이 초등학생 보다 세대차 인식에서 출발하는 것이 더 많았으며, 학업문제로 인한 갈등도 점차 증가하였다. 한편 고등학생의 결과를 보면, ‘세대차이’가 가장 높은 반응률을 보이고(34.1%), 그 다음으로 ‘없음’(19.5%) ‘학업문제’(19.0%)가 비슷한 정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됨에 따라 갈등이 점차 증가하며, 이러한 갈등은 주로 세대차이나 학업문제와 관련된 것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성별로는 남자가 ‘나의 잘못’에 두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에, 여자는 ‘야단치심’이 더 우선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표적인 범주의 빈도 순서는 대체로 일치하였으므로, 성별로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어머니의 경우에 전체적인 반응을 보면,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없음’에 대한 반응률이 30% 이상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세대차이’ ‘학업문제’ 범주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야단치심’과 ‘나의 잘못’ ‘편애’가 포함되었다. 아버지의 경우에 ‘아버지의 잘못된 행동’이라는 범주가 있었는데 비해, 어머니의 경우는 ‘어머니의 잘못된 행동’이라는 범주가 없다는 차이가 있었다.

학교수준별로 보면, 아버지에 대한 분석 결과와 거의 차이가 없었다. 즉 초등학생에서는 ‘없음’ 반응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야단치심’이 많았다. 중학생 경우는 ‘없음’이 가장 대표적인 범주이나 초등학생보다 줄어들었으며, ‘세대차이’가 두 번째로 높은 반응률을 나타내었다. 한편 고등학생은 ‘세대차이’가 35.3%로 가장 높은 반응률을 나타내고, 두 번째로 ‘학업문제’가 어머니와 중요한 갈등의 이유가 되고 있었다.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에 ‘없음’이라는 반응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세대차이’였다. 그러나 여자 경우는 ‘세대 차이’에 대한 반응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없음’에 대한 반응이 높음으로써, 대표적으로 중요한 두 범주의 순서가 바뀌었다.

부모와의 거리감

집단별 부모와 거리감을 느끼는 정도의 차이

부모와 거리감을 느끼는 정도의 차이를,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가 표 13에 제시되어 있다. 아버지에 대한 지각에 있어 학교수준별과 가정의 경제수준별로 $p < .001$ 수준의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학업성취별과 성별로도 의미있는 차이($p < .05$)가 있었다. Scheffe 검정 결과, 초등학생과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더 높은 평균을 보이므로, 세 집단 중에서 고등학생이 아버지에 대한 거리감이 가장 강하였다. 그리고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상집단보다 중집단이, 중집단보다는 하집단의 평균이 더 높음으로써,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을수록 아버지와 거리감이 더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별로는 상집단보다는 중집단이, 중집단보다는 하집단이 더 높은 평균을 나타내어,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학생일수록 아버지와 거리감

표 13. 집단별 부모와 거리감을 느끼는 정도의 차이

<아버지>						<어머니>					
독립변인	집단	N	M	SD	F/t	독립변인	집단	N	M	SD	F/t
학교수준별	초	202	1.90 _a	1.39	16.28 ***	학교수준별	초	204	1.80	1.30	1.39
	중	264	1.95 _a	1.27			중	265	1.71	1.13	
	고	282	2.48 _b	1.19			고	283	1.87	.98	
성별	남	333	2.02	1.26	-2.38 *	성별	남	337	1.71	1.09	-2.07 *
	녀	402	2.25	1.33			녀	401	1.88	1.16	
학업성취별	상	99	1.86 _a	1.20	3.34 *	학업성취별	상	99	1.47 _a	.95	4.43 *
	중	438	2.14 _{ab}	1.33			중	440	1.81 _b	1.15	
	하	134	2.30 _b	1.23			하	134	1.88 _b	1.11	
가정의 경제수준별	상	233	1.83 _a	1.24	13.24 ***	가정의 경제수준별	상	234	1.65	1.14	2.65
	중	383	2.20 _b	1.25			중	383	1.82	1.07	
	하	95	2.59 _c	1.40			하	96	1.92	1.15	

a b c는 Scheffe test결과임

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은 평균을 보임으로써, 딸이 아들보다 아버지와 더욱 거리감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머니에 대한 지각은 학업성취별과 성별로 $p < .05$ 수준의 차이가 있었고 학교수준별로는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p > .05$). 성별로는 여자의 평균이 더 높고, 학업성취별로는 중 하집단이 상집단보다 더 높은 평균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딸이 아들보다, 공부를 못하는 자녀들일수록, 어머니와 거리감을 더 갖고 있는 경향이 있었다.

부모와 거리감을 느끼는 이유

부모에 대해 거리감을 느끼는 이유를,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에 대해 자유롭게 응답한 내용을 기초로 질적 분석을 한 결과가 표 14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아버지에 대한 거리감에서 전체집

단의 반응분포를 보면, 거리감을 느끼는 이유를 쓰라고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리감 없음’이라는 반응이 과반수나 되었다. 나머지 과반수 중에서 ‘대화/ 접촉 부족’ ‘어려움’이 10% 이상을 차지하고, ‘세대차이’ ‘모범이 안 됨’이 5%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외에도 ‘갈등/ 야단치심’이 포함되었다. 각 학교수준별 집단에서 ‘거리감 없음’이 가장 대표적인 범주인 점에서 공통적이었으나, 특별히 초등학생은 2/3이상이 이렇게 반응하였으며(70.1%), 중학생(53.7%)이나 고등학생(31.9%)에서는 이러한 반응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에 비해 중 고등학생은 초등학생에 비해 ‘대화와 접촉 부족’이나 ‘세대 차이’ 및 ‘어려움’ 등에서 초등학생보다 높은 반응률을 보였다. 성별로는 남 녀 모두 ‘거리감 없음’의 반응률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남자는 그 다음으로 ‘대화/ 접촉 부족’ ‘세대차이’를, 여자는 ‘어려움’ ‘대화/ 접촉 부족’을 많이 반응하였다.

표 14. 부모와 거리감을 느끼는 이유

아버지	전체	학교수준			성별	
		초	중	고	남	여
1. 거리감 없음	285 (50.1)	103 (70.1)	117 (53.7)	65 (31.9)	132 (54.8)	147 (46.4)
2. 대화/ 접촉 부족	91 (16.0)	9 (6.1)	32 (14.7)	50 (24.5)	41 (17.0)	47 (14.8)
3. 어려움	63 (11.1)	9 (6.1)	27 (12.4)	27 (13.2)	13 (5.4)	50 (15.8)
①무서움	28(4.9)	8(5.4)	11(5.0)	9(4.4)	8(3.3)	20(6.3)
②어려움	22(3.9)	1(.7)	9(4.1)	12(5.9)	5(2.1)	17(5.4)
③성별차이	13(2.3)	-	7(3.2)	6(2.9)	-	13(4.1)
4. 세대차이	43 (7.6)	3 (2.0)	15 (6.9)	25 (12.3)	15 (6.2)	28 (8.8)
①세대차	31(5.4)	-	10(4.6)	21(10.3)	10(4.1)	21(6.6)
②사고방식 차이	12(2.1)	3(2.0)	5(2.3)	4(2.0)	5(2.1)	7(2.2)
5. 모범이 안 됨	29 (5.1)	4 (2.7)	11 (5.0)	14 (6.9)	12 (5.0)	15 (4.7)
①성격문제	25(4.4)	4(2.7)	9(4.1)	12(5.9)	10(4.1)	13(4.1)
②어머니와의 갈등	4(.7)	-	2(.9)	2(1.0)	2(.8)	2(.6)
6. 갈등/ 야단치심	20 (3.5)	12 (8.2)	-	8 (3.9)	12 (5.0)	8 (2.5)
7. 기타	38 (6.7)	7 (4.8)	16 (7.3)	15 (7.4)	16 (6.6)	22 (6.9)
①특별한 이유 없음	18(3.2)	4(2.7)	7(3.2)	7(3.4)	9(3.7)	9(2.8)
②기타	20(3.5)	3(2.0)	9(4.1)	8(3.9)	7(2.9)	13(4.1)
전체	569(100.0)	147(100.0)	218(100.0)	204(100.0)	241(100.0)	317(100.0)

어머니	전체	학교수준			성별	
		초	중	고	남	여
1. 거리감 없음	355 (62.6)	103 (69.1)	142 (65.4)	110 (54.7)	169 (69.5)	178 (56.9)
2. 갈등	60 (10.6)	19 (12.8)	18 (8.3)	23 (11.4)	21 (8.6)	39 (12.5)
①갈등	39(6.9)	15(10.1)	14(6.5)	10(5.0)	13(5.3)	26(8.3)
②나를 이해 못함	21(3.7)	4(2.7)	4(1.8)	13(6.5)	8(3.3)	13(4.2)
3. 세대차이	49 (8.6)	3 (2.0)	22 (10.1)	24 (11.9)	19 (7.8)	30 (9.6)
①세대차	37(6.5)	-	18(8.3)	19(9.5)	15(6.2)	22(7.0)
②사고방식 차이	12(2.1)	3(2.0)	4(1.8)	5(2.5)	4(1.6)	8(2.6)
4. 대화/접촉부족	30 (5.3)	6 (4.0)	12 (5.5)	12 (6.0)	15 (6.2)	15 (4.8)
5. 어려움	25 (4.4)	3 (2.0)	8 (3.7)	14 (7.0)	3 (1.2)	21 (6.7)
6. 학업/성적	10 (1.8)	4 (2.7)	3 (1.4)	3 (1.5)	3 (1.2)	7 (2.2)
7. 기타	38 (6.7)	11 (7.4)	12 (5.5)	15 (7.5)	13 (5.3)	23 (7.3)
①특별한 이유 없음	15(2.6)	4(2.7)	6(2.8)	5(2.5)	7(2.9)	8(2.6)
②편애	7(1.2)	3(2.0)	3(1.4)	1(.5)	-	6(1.9)
③기타	16(2.8)	4(2.7)	3(1.4)	9(4.5)	6(2.5)	9(2.9)
전체	569(100.0)	149(100.0)	217(100.0)	201(100.0)	243(100.0)	313(100.0)

어머니와 거리감을 느끼는 이유에 대하여, 전체적으로는 ‘거리감 없음’이 62.6%로 반수 이상이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갈등’ ‘세대차이’ ‘대화/ 접촉 부족’이 5% 이상의 반응률을 보였다. 이외에도 ‘어려움’이라든가, ‘학업/ 성적’과 같은 개념범주가 포함되었다. 학교수준별로 보면, 세 집단 모두 매우 유사한 패턴을 나타내었으나, ‘거리감 없음’에서는 상대적으로 초등학생의 반응률이 가장 높았고, ‘세대차이’에서는 초등학생의 반응률이 세 집단 중에서 가장 낮았다. 성별로 분석하였을 때, 남자와 여자 모두 ‘거리감 없음’에 현저하게 높은 반응률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갈등’ ‘세대차이’ 범주의 반응률이 같은 점에서 유사하였다.

논의 및 결론

이상에서의 분석 결과를 기초로 하여, 아래에서는 한국 아동과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시각에서 드러나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을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정리하고, 나아가서 후속연구를 위한 시사점도 생각해 보기로 한다.

한국 아동과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시각:
토착적 특징

부모에 대한 강한 고마움과 존경심 및, 그 이유로서 부모의 희생과 고생

한국의 아동과 청소년들은 부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러한 사회적 표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일련의 노력으로 이 연구는 진행되었다. 물론 각 개인마다 부모에 대한 시각이 다양하겠지만, 분석 자료를 종합해 볼 때, 한국의 아동과 청소년들은 부모에 대해 고마운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을 매우 강하게 갖고 있었다. 이러한 해석은 5점 척도 상에서 부모에 대해 고마움(아버지 M=4.64, 어머니 M=4.78)과 존경심(아버지 M=4.39, 어머니 M=4.47)을 느끼는 정도를 응답하도록 질문하였을 때, 평균이 ‘매우 그렇다’는 5점에 가까운 극단적인 값으로 나타난 것에 기인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해서 동일하였다. 그러므로 한국의 아동과 청소년들은 부모에 대해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며 강한 존경심을 갖고 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한국 사람들은 부모님이 고맙다는 표상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자명한 현상에 대해 왜 그런가에 대한 질문이 별로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공기 속에서 존재하며 숨을 쉬지만, 너무나 당연한 공기의 존재에 대해 특별히 의식하지 않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물론 서구사회에서도 부모자녀관계는 다른 인간관계에 비해 비중이 다른 중요한 관계이지만, 한국 사람들이 부모와 형성하고 있는 절대적인 애착관계는, 그 강도의 면에서 서구사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우리의 독특한 문화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부모가 그렇게 유별나게 고맙고 존경스러운 존재라면, 그들이 부모에 대해 매우 고마운 마음과 강한 존경심을 갖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다음 단계의 질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매우 의미있는 답을 제시해 주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고, 개인마다 그 이유가 다 다를 것지만 한마디로 종합해 본다면, 부모의 절대적인 희생과 가족을 위한 고생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를 고맙게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서, 부모님의 가족을 위

한 고생과 희생이라는 반응은 매우 흥미롭다. 이는 부모가 개인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예컨대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지니고 있는 객관적인 지위와 위치에 있어서가 아니라, 부모가 가족을 위해 고생하고 헌신하며 보살피 주기 때문에 존경하는 경우가 많음을 의미하였다. 즉 응답자의 약 40%가 아버지나 어머니를 존경하는 이유로서, 부모님의 희생을 압도적으로 지적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자녀관계에서 자녀가 부모에 대해 느끼는 고마움이나 심지어는 존경심까지도, 부모가 가족을 위한 희생하고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감동하는 마음에서 스스로 갖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에 대한 존경의 이유로서 성실함, 혈연관계, 인자함, 높은 교육열과 지도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바처럼 부모님의 희생이었지만, 이외에 성실함이 두 번째로 많이 지적되었다. 또한 혈연관계, 인자함, 높은 교육열과 지도가 핵심적인 개념으로 포함되었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개념범주들을 보면 매우 흥미롭다. 부모를 존경하는 이유로서, 자녀들이 부모의 탁월한 능력이나 유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기보다, 부모의 성실한 태도와 인내심, 그러한 성실성에 바탕을 둔 모범이 되는 태도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박영신 김의철과 탁수연(2002)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은 성공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서 개인의 능력차원보다는 자기조절을 통한 노력의 차원, 즉 노력 인내 의지력과 같은 성실성을 핵심적인 가치로 인식하고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

그리고 피로 맺어진 혈연관계, 즉 부모니까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존경의 대상이라는 반응도 매우 흥미롭다. 만약에

합리적이고 개인적인 사고에 바탕을 두고 있는 서구의 청소년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했다면, 과연 이러한 혈연관계이기 때문에 존경한다는 응답이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여 개념범주로 부각될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연구자의 추론이다. 즉 서구의 청소년들은 어떠한 대상을 존경하는 이유를 쓰라고 한다면, 그 대상이 부모였던 다른 사람이든 상대방 개인의 존경받을 이유 자체를 열거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우리 청소년들은 부모와 나는 부모자녀관계라는 혈연관계이기 때문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적으로 존경해야 한다는 인간관계 중심의 사고가 절대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Lee, Park과 Kim(2002)의 연구에서도 부모를 신뢰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부모의 구체적인 신뢰성 있는 태도나 행동 때문이 아니라, 피로 맺어진 혈연관계이기 때문에 무조건 신뢰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므로 한국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신뢰의식을 분석한 결과도, 이 연구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는 이유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부모에 대한 사회적 표상을 IMF시대 이전(구재선, 김의철, 2001)과 이후(Hamm, Park, & Kim, 2001)에 연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아버지에게 대해서는 ‘엄격함’이 가장 대표적인 표상이었고 그 다음으로 ‘고생하심’ ‘인자함’ ‘존경스러움’ ‘애정을 느낌’ ‘의지가 됨’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니에 대해서는 ‘인자함’이 가장 대표적인 표상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고생하심’ ‘희생적임’ ‘애정을 느낌’ ‘강인함’ ‘간섭함’의 순서로 확인된 바 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도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 한국 사람들이 갖는 사회적 표상 중에서 ‘인자함’이 부모를 존경하는 중요한 개념범주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니까 부모의 엄격한 모습보다는 자상하게 인간적으로 이

해해 주고 용기와 격려를 해주는 인자한 모습을 통해서, 존경심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개념 범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반응률이 낮기는 하였지만, ‘높은 교육열과 지도’라는 개념 범주 또한 연구자의 주목을 끈다. 한국의 아동과 청소년들은 부모가 자녀에 대해 교육적 관심을 많이 갖고 열심히 지도하고자 할 때, 그러한 부모님의 모습을 존경한다는 뜻이다. 한국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부모가 공부에 대한 압력을 줄 때 잔소리로 받아들이고 갈등의 원인이 되는 측면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적되어 왔으나, 이와 같이 부모의 교육적 관심이 자녀들로부터 존경의 이유가 되는 측면에 대해서는 별로 지적된 바가 없다. 높은 교육열과 지도가 부모를 존경하는 이유로 밝혀진 이 연구에서의 결과는, 부모의 적절한 교육적 관심과 기대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역동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한국 자녀들의 심리적 근원을 시사하는 흥미로운 발견이다.

부모에 대한 죄송함과, 그 이유로서 순종하지 않음과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침과 학업에 소홀함

부모에 대한 고마움 및 존경심과 더불어 부모에 대한 죄송함 또한, 한국의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매우 강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는 정도를 5점 척도 상에 응답하도록 하였을 때, 아버지(M= 3.99)와 어머니(M=4.13) 모두 매우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한국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부모에 대해 평소에 죄송한 마음을 매우 많이 갖고 있음을 확인해 주는 결과이다. 청소년들이 부모에 대해 죄송함을 많이 느낀다는 결과는,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분석한 정갑순, 박영신과 김의철(2002a)의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

이와 같이 아동과 청소년들이 부모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갖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버지에 대해 죄송한 이유를 보면, ‘아버지의 기대에 못 미침’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순종하지 않음’ ‘학업에 소홀함’ ‘효도를 못함’과 같은 개념범주들이 밝혀졌다. 어머니에 대해 죄송한 이유를 보면, ‘순종하지 않음’이 40% 이상의 응답자가 지적한 가장 대표적인 이유였으며, 그 다음으로 ‘부모 기대에 못 미침’이 20%의 비율을 차지하였고, ‘학업에 소홀함’과 ‘효도를 못함’도 각각 10~20% 사이의 높은 반응률을 보였다. 따라서 부모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며 학업에 소홀하는 것이, 부모에게 죄송하다고 지각하는 심리를 유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아동과 청소년이 부모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게 되는 중요한 이유로서, 학업에 소홀하고 있다는 자녀의 지각이 포함된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이 연구에서의 분석에 의하면, 학업에 소홀하다는 의미는,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든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든가, 놀기만 한다든가,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든가 의미였다. 그 중에서도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든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것이, 학업에 소홀함이라는 개념을 대표하였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긴다. 왜 한국 학생들은 공부를 못하거나 열심히 안하는 것이, 부모에게 죄송한 일인가? 냉정하게 따져 본다면, 공부를 못해서 소위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에 가지 못하면, 한국 사회에서 그것의 결과가 개인의 미래 삶에 어려움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은 자기 인생의 문제인데, 그것이 왜 부모에게 죄송한 일이 되는가? 또 공부를 하기 싫어서 열심히 안하면 안한 것의 책임을 자기 스스로 지면 되고, 공부

외에 자기가 좋아하는 다른 것을 열심히 해서 성공하면 되는데, 공부 안하는 것이 왜 부모에게 죄송한 일인가? 만약 서양의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지 못할 때, 우리 한국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부모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인가? 공부를 못해서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기는 하겠지만, 부모자녀관계에서 부모에 대한 죄송함이라는 지각을 한국의 자녀들처럼 일반화된 사회적 표상으로 갖지는 않을 것이다. 그 이전에 부모에 대해 죄송하다는 토착적인 표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서양의 자녀들은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을 때 열심히 하지 않는 나름대로의 이유를 갖고 또한 다른 대안을 가지며 자기 개인의 문제로 판단하지, 한국의 자녀들처럼 공부 안 해서 부모에게 죄송하다는 인간관계 차원에서의 해석을 사회적 표상으로 공유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학업에 소홀하는 것이 부모에게 죄송한 이유라는 한국 아동과 청소년의 반응을 통해 시사하는 바는 다양하다. 이는 역사적으로 전통 한국 사회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학업성취가 유교주의 가치와 더불어 얼마나 중요한 가치로 강조(박영신, 김의철, 2002; Kim & Park, 2000; 2003)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또 한편으로는 개인주의 전통의 서구와 달리, 집단주의 문화의 전통에서 있는 한국 사회에서 부모자녀관계를 포함하는 인간관계가 개인의 존재와 삶에 얼마나 깊게 자리 잡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이다.

부모 중 특히 어머니에 대한 강한 친밀감과 약한 거리감

이 연구에서의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아동과 청소년들은 부모에 대해 강한 친밀감을 갖고 있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부모와의 거리감

은 매우 약하게 가졌다. 이는 전체 응답자들의 부모에 대한 친밀감과 거리감의 평균을 보았을 때, 5점 척도에서 친밀감의 평균이 5점(매우 그렇다)과 4점(약간 그렇다) 사이에 위치하고, 부모에 대한 거리감의 평균은 1점(전혀 아니다)과 2점(약간 아니다) 사이에 위치하는 사실로부터 확인된다.

부모에 대한 강한 친밀감과 약한 거리감은 이와 같은 양적인 분석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부모와의 거리감에 대한 질적인 분석에서도 확실하게 나타났다. 이 연구에 활용된 질문지에서 “아버지에 대해 얼마나 거리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거리감을 느끼는 이유를 써 주십시오”라고 함으로써, 지시문에서 거리감을 느끼는 이유를 자유롭게 적으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였다. 그리고 동일한 질문을 어머니에 대해서도 직접 기록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응답자들이 거리감을 느끼는 이유를 쓴 것이 아니라 “거리감이 없다”라는 반응을 하였다. 즉 반수 이상의 응답자가 약속이나 한 듯이 부모에 대한 거리감의 이유 대신에 거리감이 없다는 생각을 이렇게 직접 기록했다는 사실은, 한국 자녀들의 뚜렷한 심리적 특성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거리감이 있다”와 “거리감이 없다”는 답지를 제공해 주고 그 중에서 양자택일하여 선택하게 하는 질문의 방식에서 나온 결과와, 이 연구에서와 같은 질문의 방식에서 나온 결과가 의미하는 강도는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추가로 지적하고자 하는 점은,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강한 친밀감과 약한 거리감에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 대해 이러한 지각이 더욱 현저하다는 점이다. 예컨대 부모에 대한 지각의 양적 분석에서, 아버지에 대한 친밀감은 ‘약간 그렇다’(M=3.95)는 수준에 머무는 반

면에, 어머니에 대한 친밀감은 ‘매우 그렇다’(M=4.50)는 수준에 근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버지에 대한 거리감은 ‘약간 아니다’(M=2.14)의 수준을 상회하고 있으나, 어머니에 대한 거리감은 ‘전혀 아니다’(M=1.79)와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동일한 부모이지만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 대해 훨씬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어머니에 대해 더욱 가까이 느끼는 경향은, 질적인 분석 결과에서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재확인되었다. 아버지에 대해 거리감을 느끼는 이유를 쓰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0.1%가, 어머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2.6%가 “거리감이 없다”고 명시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 대해 거리감을 느끼지 않고 즉 가까이 느끼는 자녀들이 훨씬 많다고 할 수 있다.

부모와의 갈등과 그 이유로서 세대차이와 학업문제

부모와의 갈등은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 5점 척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3점 보다 낮은 점수를 나타냄으로써, 갈등의 정도는 약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에 대해 고마워하거나 존경하고 죄송해하는 마음은 매우 강한 것에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한국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부모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질적 분석 결과도 갈등을 느끼는 자녀가 상대적으로 적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부모와 갈등을 느끼는 이유를 자유롭게 기록하도록 하였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 모두 30% 이상의 응답자가 갈등을 느끼는 이유가 없다고 반응하였다.

한편 부모와 갈등을 느끼는 이유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 모두 ‘세대차이’와 ‘학업문제’가 대표적인 내용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세대차이’란 의견이 너무 달라서 세대차의 느낌을 갖게 된다는가,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는가, 하고 싶은 것을 부모님이 못하게 하는 등을 의미하였다. 세대 차이에 대한 최근의 양적인 연구(김명언, 김의철, 박영신, 2000; 김의철, 박영신, 김명언, 이건우, 유호식, 2000)에서도, 다양한 세대차이가 확인된 바 있다. 예컨대 청소년이 진보지향가치가 높았으며 보수지향가치는 성인이 훨씬 높았고, 청소년은 인기직업을 부러워한다면 노인은 안정된 직업을 선호하였다. 컴퓨터나 통신기기의 활용도, 랩 힙합음악의 선호도 등 다양한 일상행동에서도, 청소년은 성인과 세대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부모와 갈등을 느끼는 이유로서 ‘학업문제’에 대한 응답자들의 지적은, 연구자의 관심을 끈다. 학교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또는 학교공부를 열심히 하느냐 열심히 하지 않느냐 하는 학업과 관련된 문제들이, 부모와 갈등을 일으키는 주된 내용이 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의 가정에서 자녀의 학업성취가 부모들의 자녀양육과 자녀에 대한 기대에서 차지하는 비중(박영신, 2000)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동시에 한국 학생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에서 학업관련 문제가 가장 크다(박영신, 김의철, 김묘성, 2002)는 사실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동기에서 청소년기까지 부모에 대한 지각의 변화

부모와 갈등의 증가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성장함에 따라 부모와의 갈등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초등학교 3학년에서는 아버지와 의 갈등이 약간 없다는 수준에 있었으나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는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상당한 변화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갈등의 증가 경향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부모의 영향력 속에서 생활하는 아동기와는 달리, 청소년기에는 또래집단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원도 증가하고(박영신, 김의철, 민병기, 2002) 또래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자녀 자신의 자기주장도 뚜렷해지므로, 부모와 여러 면에서 의견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연구에서 부모와 갈등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 질적인 분석을 한 결과는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해 준다. 즉 응답자들은 부모와 의견이 다르고, 부모가 자기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러한 유형의 세대차이 인식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또한 부모와 갈등을 느끼는 이유로서 학업과 관련된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된 것과 관련하여, 아동기에 비해 중 고등학교 시기가 되면 대학입학시험이라는 큰 과제가 가까이 다가오게 되기 때문에, 학업문제와 관련된 부모와의 갈등이 증가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연구에서 질적 분석 결과를 보면, 학업문제로 인해 부모와 갈등을 느끼는 비율이, 아동기인 초등학교 3학년에 비해 청소년기인 중 고등학생에서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에 대한 죄송함의 증가와 고마움 및 존경심의 감소

부모에 대한 죄송함은 아동기에 비해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부모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심은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되면서 약간 감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마움과 존경심은, 죄송함이나 친밀감 거리감 갈등보다 매우 강하게 인식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해서 동일하였다. 그러므로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을 거쳐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부모에 대한 지각의 특성에서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모든 발달단계에서 부모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심이 현저하게 높았으나, 아동기에 비해 청소년기로 되면서 약간씩 감소하고 오히려 죄송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자녀들이 점차 철이 들어가면서 부모에 대한 죄송함이 증가한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아버지에 대한 친밀감의 감소와 거리감의 증가

이 연구에서의 결과를 보면,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됨에 따라 부모에 대한 친밀감은 조금씩 감소하고 거리감은 조금씩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다. 물론 친밀감이 감소하기는 했으나, 고등학생 시기에도 여전히 친밀감이 거리감보다는 훨씬 높은 평균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 모두 동일하였는데, 특히 아버지에 대한 지각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그러므로 전반적으로 한국의 아동과 청소년은 부모에 대한 친밀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갈수록 이러한 친밀감은 약해지고 오히려 약간의 거리감이 증가하는데, 특별히 아버지에 대한 지각에서 이러한 거리감을 더욱 느낀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즉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 대해 친밀감이 계속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었다.

하위집단별 아동과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지각 차이

학업성취별 부모에 대한 지각의 차이

학업성취별 부모에 대한 지각의 차이는, 학교 수준별 부모에 대한 지각의 변화와 동일한 패턴을 나타내었다. 즉 학업성취 상 중 하집단의 부모에 대한 지각은, 학교수준 초 중 고등학생의 부모에 대한 지각과 같은 유형의 변화를 보였다. 학업성취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부모를 고맙게 생각하며 존경하고 친밀한 관계로 지각하였으며, 학업성취도가 낮아질수록 부모에 대한 이러한 지각에 점차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에 대한 죄송함은 학업성취 상집단과 중집단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하집단으로 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별히 부모와의 갈등이나 거리감은 학업성취 상집단에서 가장 낮았으며, 하집단에서는 상당히 증가하였다. 요약하면, 학교 공부를 잘 하는 학생일수록 부모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친밀감을 갖고 있으며, 갈등의 정도는 낮았다. 이러한 사실은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가 자녀의 높은 성취에 영향을 미친다(Chung, Choi, Park, & Kim, 2002)는 결과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정의 경제수준별 부모에 대한 지각의 차이

한편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도 부모에 대한 지각에서 차이가 있었다. 분석 결과도 학업성취수준별 분석과 유사한 패턴을 나타내었다. 즉 경제수준이 높은 가정의 자녀일수록 부모에 대해 고마움을 갖고 있었으며, 부모에 대한 존경심도 강하였으며, 부모를 훨씬 가깝게 생각하였다. 반면에 부모와 갈등을 느끼는 정도는 낮았으며, 아버지와 거리감을 느끼는 정도도 낮았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경제수준이 높은 가정의 자녀일수록 부모에 대해 고마움과 존경심만이 아니라 친밀도가 높으며, 이와 대조적으로 경제수준이 낮은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와 더 많은

갈등을 갖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가정의 경제수준 집단별 부모에 대한 지각의 차이를 검증하였기 때문에, 가정의 경제수준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가정의 경제수준은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지각에서의 차이를 설명하는 의미있는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성별 부모에 대한 지각의 차이

학교수준별, 학업성취별, 가정의 경제수준별로 부모에 대한 지각에서 상당히 의미있는 차이가 밝혀졌는데 비해, 성별에 따라서는 부모에 대한 지각에서 약간의 차이만 있었다. 딸이 아들보다 어머니에 대해 죄송함을 느꼈으며, 또한 딸이 아들보다 부모에 대해 더 갈등을 느끼고 거리감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의도 수준은 크게 높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볼 때, 아동기에서 청소년기 동안에 성별에 따른 부모에 대한 지각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딸이 아들보다 부모에 대해 더욱 갈등과 거리감을 느끼는 결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후속연구를 위한 과제

후속연구를 위해 고려해 보아야 할 점이 많이 있겠지만, 이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부각되는 과제는 표집대상의 확대와 관련된 것이다. 이 연구에서 표집대상은 아동기의 초등학교 3학년과 청소년기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으로 구성된 학생집단이었다. 표집대상의 확대와 관련하여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청소년 후기 또는 청년기라고 지칭될 수 있는 대학생 표집을 추가해 보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를 거치는

동안 부모에 대한 지각의 변화가, 청년기로 접어들면서 계속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확인해 보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대학생도 학생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고등학생과는 전혀 다른 심리적 물리적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개인의 발달단계 면에서도 성인으로서의 준비를 해 나가는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10대의 중 고등학생들과 20대의 대학생들이 부모에 대한 지각에서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한국 사람의 부모에 대한 표상의 발달적 변화를 보다 정교하게 추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생 이후 대학생 시기에 부모에 대한 지각이 어떻게 유지되고 변화하는지가 궁금한 숙제로 남는다. 부모에 대한 지각의 변화 과정에 대한 이해는, 자녀들의 심리와 행동 변화에 대한 이해를 위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청소년 중에서 일반 중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학생이 아닌 일탈 청소년들을 표집으로 추가해 보는 일이다. 과연 보호 관찰을 받거나 소년원에 있는 일탈청소년들은 이 연구에서의 분석대상인 일반 초 중 고등학생들이 응답한 바와 같이 부모에 대해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존경하며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을 것인가? 그동안의 선행연구 결과들(박영신, 김의철, 2003b; 탁수연, 박영신, 김의철, 2002)을 종합하여 볼 때, 일탈청소년들의 부모에 대한 지각은 이 연구에서 밝혀진 일반 청소년들의 부모에 대한 지각과 질적으로 다른 면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이다. 과연 일탈 청소년들이 일반 초 중 고등학생들과 부모에 대한 지각에서 어떠한 공통점이 있고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를, 경험 과학적 자료에 토대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이는 일탈 청소년의 행동을 유발하게 한 심리와, 그러

한 심리의 형성 및 역동에 작용한 가정의 환경을 보다 심도있게 이해하고, 나아가서 청소년 일탈행동의 예방과 지도에도 중요한 시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반 청소년과 일탈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지각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한국인 부모자녀관계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더욱 통찰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 아동과 청소년이 부모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 하는 토착심리를 분석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었으며, 더불어 아동기에서 청소년기까지 부모에 대한 지각의 변화, 학업성취와 가정의 경제수준 및 성별과 같은 하위집단별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지각의 차이에 관심을 가졌다. 따라서 학교수준별, 성별, 학업성취별, 경제수준별로 부모에 대한 지각의 차이를 일원변량분석 하였다. 후속연구에서 이 연구의 자료를 인용하거나 재분석할 기회가 있을 때, 학교수준별 성별 상호작용효과를 검토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한편 이 연구에서 부모에 대한 지각의 토착심리적 특징을 측정하기 위해 자유반응형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더불어 종속변인에 대한 양적 측정도 시도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이 연구에서 밝혀진 토착심리들을 대표하는 변인들을 정교하게 측정하여,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양호한 도구를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표집대상 구성의 확대와 분석방법의 다양화 및 양호한 측정도구의 개발과 관련된 문제 외에, 연구자의 관심을 끄는 후속연구 과제는, 한국 아동과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토착적인 심리가 그들의 다양한 심리적이고 행동적인 특성과 어떠한 관련을 갖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다. 이 연구에서 주로 다룬 바와 같이 아동과 청소년이 부모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는가를 분석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지만, 거기에서 그치기보다 한국인

의 토착적인 부모자녀관계가 결과적으로 한국인의 심리와 행동의 형성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는가를 분석하는 문제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예컨대 아동에서 청소년으로 성장하면서 점차 중요하게 인식되어 가고 있는 부모에 대한 죄송한 마음에 대한 분석 등은 앞으로 계속 연구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모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 어떻게 형성되며, 형성된 죄송한 마음이 결과적으로 자녀의 심리와 행동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등에 대한 탐색은, 한국인의 토착적인 부모자녀관계의 기제를 밝혀 나가는 일련의 노력 중의 하나의 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을 종단적으로 추적 분석하였을 때, 부모에 대한 죄송함이 자녀의 성취동기에 직접적이며 정적인 방향의 영향이 확인된 바 있다(정갑순, 박영신, 김의철, 2002a). 또한 한국인의 토착적인 부모자녀관계의 심리적 유대가 자살 시도와 같은 인간의 극단적인 절망 상황에서 어떠한 구원을 제공(Park, 2002a)할 수 있으며, 생활만족도의 향상과 같은 삶의 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박영신, 김의철, 민병기, 2002)에 대해서도 검토된 바 있다.

부모자녀관계는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확대되고 변형되어 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국인의 부모자녀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Park, 2002b)하다. 그리고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분석은 그 당사자인 부모와 자녀에게만 작용하는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한국의 전통적 문화에 기초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의 토착 심리를 밝히는 일환으로서 의의가 있다. 급변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한국인의 다양한 토착심리가 심리와 행동에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이해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교육현상(박영신, 김의철, 2003c), 가정의 변화, 인간관계와 연고, 기업 및 조직에서의 성취 등 다양한 문제를 심도있게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중

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 구재선, 김의철. (2001). 한국인의 가족에 대한 표상: IMF시대 이전. 2002년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49~354.
- 권혁호, 박영신, 김의철. (2003). 청소년 스트레스에 관한 종단적 연구: 사회적 지원과 자기 효능감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심리학회 2003년 학술대회 자료, 1~40. 2003년 8월 23일.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 김명언, 김의철, 박영신 (2000). 청소년과 성인간의 세대 차이와 유사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1), 181~204.
- 김묘성, 김의철, 박영신. (2002). 한국 정치지도자의 문제점과 자질에 대한 청소년의 표상: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 2002년도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27~333.
- 김의철, 박영신. (1999). 한국 청소년의 심리 행동 특성의 형성: 가정, 학교, 친구, 사회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13(1), 99~142.
- 김의철, 박영신, 김명언, 이건우, 유호식 (2000). 청소년, 성인, 노인 세대의 차이와 생활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1), 119~145.
- 김의철, 박영신, 오나라. (2003). 한국 중학생, 대학생, 성인의 미국에 대한 인식: 반미감정의 심리 사회 문화적 토대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1), 139~178.
- 박영신 (2000). 한국인의 성취의식과 귀인양식에 대한 토착심리학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3), 특집호, 67~97.
- 박영신. (2003). 청소년의 인간관계와 일탈행동.

- 한국심리학회, 2003년도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12~213. 2003년 8월 22일. 연세대학교 상경관.
- 박영신, 김의철 (1998). 청소년 비행과 성취행동: 가정환경, 귀인양식, 건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4(1), 29~53.
- 박영신, 김의철 (2000). 부모-자녀관계 변화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초 중 고 대학생의 성취동기, 생활만족도, 학업성취, 일탈행동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회. 교육학연구, 38(2), 109~147.
- 박영신, 김의철. (2001a). 학교폭력과 인간관계 및 청소년의 심리 행동특성: 폭력가해, 폭력피해, 폭력무경험 집단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7(1), 63~89.
- 박영신, 김의철. (2001b). 청소년 학교폭력행동과 환경 및 심리특성의 관계: 위탁청소년과 중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15(2), 25~52.
- 박영신, 김의철. (2002). 한국사회의 교육적 성취: 현상과 심리적 기반.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16(4), 325~351.
- 박영신, 김의철. (2003a). 한국 청소년의 성취동기 및 학업성취에 대한 부모자녀관계의 영향: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학연구, 10(1), 139~165.
- 박영신, 김의철. (2003b). 한국 청소년 일탈행동의 변화와 형성에 대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1), 81~114.
- 박영신, 김의철. (2003c). 한국 교육학의 토착화를 위한 시도와 전망: '교육심리학'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회 50주년 기념 출판. 한국교육학회 50년의 회고와 전망. 제 1 부. 한국교육학의 자생성. 123~162.
- 박영신, 김의철, 김묘성. (2002). IMF시대 이후 초, 중, 고, 대학생과 부모의 스트레스 경험과 대처양식 및 사회적 지원: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2), 105~135.
- 박영신, 김의철, 김영희, 민병기. (1999). 초등학생의 생활만족도 형성요인에 대한 구조적 관계 분석: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5(1), 57~76.
- 박영신, 김의철, 민병기. (2002). 부모의 사회적 지원,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 변화에 대한 종단자료 분석과 생활만족도 형성에 대한 구조적 관계 분석.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16(2), 63~92.
-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이상미, 권혁호, 양계민. (2000). 초, 중, 고등학생의 생활만족도 차이와 형성 및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1), 94~118.
- 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2). IMF시대 이후 한국 학생과 성인의 성공에 대한 의식: 토착심리학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1), 103~139.
- 윤영진, 김의철, 박영신. (2002). 한국사회의 문제와 발전 전망에 대한 표상: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 2002년도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34~339.
- 이훈구. (2001).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요. 서울: 이야기.
- 정갑순, 박영신, 김의철. (2002a). 학업성취과정에서 분석: 부모자녀관계, 학업성취효능감, 과거성취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2002년도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15~321. 2002년 10월 19일, 영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

- 정갑순, 박영신, 김의철. (2002b). 학업성취과정에 관한 종단적 분석: 자기조절학습효능감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회 2002년 연차학술대회 교육심리분과 발표, 1~19. 2002년 10월 26일, 창원대학교 인문관.
- 조선일보. (2003). 2003년 7월 18일자.
- 조선일보. (2003). 휴일에 '막노동 아버지' 돕던 고교생 공사장서 함께 질식 사망. 2003년 7월 19일자.
- 조선일보. (2003). 죽어서 더 외로운 노인들: 프랑스 '살인폭염' 후유증, 방치된 시신 늘어. 2003년 8월 26일자, A19.
- 중앙일보. (2003). 아버지 살린 효자에 하늘이 내려준 산삼: 간 떼어준 두 형제에 감복, 동호회에서 일곱뿌리 선물. 2003년 8월 6일자.
- 최중숙, 박영신, 김의철. (2003). 화목한 가정을 위한 가족의 역할에 대한 토착심리학적 분석: 학부모와 교육자 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2003년도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93~194. 2003년 8월 22일. 연세대학교 상경관.
- 탁수연, 박영신, 김의철. (2002). 보호관찰 청소년과 고등학생 부모집단의 자녀관계에 대한 분석: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 2002년도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21~326. 2002년 10월 19일. 영남대학교 생활과 학대학.
- 한기혜, 박영신. (2003). 보호관찰 청소년의 가정 환경과 부모자녀관계. 한국심리학회, 2003년도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95~196. 2003년 8월 22일. 연세대학교 상경관.
- 함병미, 박영신, 김의철. (2003). 부모와 초등학생 자녀가 지각한 화목한 가정을 위한 가족의 역할: 토착심리학적 분석. 한국심리학회 2003년도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91~192. 2003년 8월 22일. 연세대학교 상경관.
- Chung, K. S., Choi, J. S., Park, Y. S., & Kim, U. (2002). Longitudin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among parent-child relationship, Self-efficacy, achievement motiv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Poster presented at the 25th International Congress of Applied Psychology, p.84. July, 7-12. Singapore International Convention & Exhibition Centre, Singapore.
- Hamm, B. M., Park, Y. S., & Kim, U. (2001). Korean students and adults' self-concept: An indigenous analysis. Paper presented at the 4th Conference of the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 p. 134. July 10-13, The University of Melbourne, Melbourne, Australia.
- Hamm, B. M., Park, Y. S., & Kim, U. (2002). Koreans self-concept in the family relationship: After the IMF period. Poster presented at the 25th International Congress of Applied Psychology, p. 84. July, 7-12. Singapore International Convention & Exhibition Centre, Singapore.
- Hofstede, G. (1991). *Culture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London: McGraw Hills.
- House, J. S., Landis, K. R., & Umberson, D. (1988). Social relationships and health. *Science*, *241*, 540~545.
- Kim, U. (1999). After the crisis in social psychology: Development of the transactional model of science.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 1~19.
- Kim, U. (2001). Culture, science, and indigenous psychologies: An integrated analysis. Matsumoto, D. (Ed.). *The Handbook of Culture and Psychology*. 51~76. Oxford: Oxford University

- Press.
- Kim, U., & Berry, J. (1993). Introduction. Kim, U., & Berry, J. (Eds.). *Indigenous Psychologies: Research and Experience in Cultural Context*. 1~29.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s.
- Kim, U., & Park, Y. S. (2000). Confucianism and family values: Their impact of educational achievement in Korea. *Zeitschrift für Erziehungswissenschaft*, 3(2), 229~249.
- Kim, U., & Park, Y. S. (2003). Chapter 9. An indigenous analysis of success attribution: Comparison of Korean students and adults. In K. S. Yang, K. K. Hwang, P. B. Pedersen, & I. Daibo (Eds.), *Progress in Asian Social Psycholog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tributions. vol. 3*. pp. 171~195. AASP. Westport, CT: Greenwood Publisher.
- Kim, U., Park, Y. S., & Park, D. H. (2000). The challenge of cross-cultural psychology: The role of the indigenous psychologi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1(1), 63~75.
- Lee, S. M., Park, Y. S., & Kim U. (2002). Perception of parent-child trust and distrust in Korea: Indigenous analysis of Korean high school students and parents. Paper presented at the 44th Annual Conference of Japanese Association of Educational Psychology, p.135, October, 12-14. Kumamoto University, Kumamoto, Japan.
- Park, Y. S. (2002a).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subjective well-being: Redefining human agency and meaning systems. Invited speaking at the 25th International Congress of Applied Psychology, p.101. July,7-12. Singapore International Convention & Exhibition Centre, Singapore.
- Park, Y. S. (2002b).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Korean adolescents and adults: With specific focus on the indigenous analysis of parent-child relationship. Keynote Lecture at the 44th Annual Conference of Japanese Association of Educational Psychology, p. 21 & p.1~8, October, 12-14. Kumamoto University, Kumamoto, Japan.
- Tak, S. Y., Moon, M. J., Park, Y. S., & Kim, U. (2002). Koreans failure experience and future achievement: After the IMF period. Poster presented at the 25th International Congress of Applied Psychology. p. 84. July, 7-12. Singapore International Convention & Exhibition Centre, Singapore.
- Triandis, H. C., Bontempo, R., Villareal, M. J., Asai, M., & Lucca, N. (1988).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Cross-cultural perspectives on self-ingroup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54, 323~338.

1 차원고 접수일 : 2003. 9. 10.

최종원고 접수일 : 2003. 10. 3.

How Korean children and adolescents perceive their parents: Indigenous psychological analysis

Young-Shin Park
Inha Univ.
Dept. of Education

Uichol Kim
Chung-Ang Univ.
Dept. of Psychology

Kee Hye Han
Inha Univ.
Dept. of Education

This study investigates how Korean children and adolescents perceive their parents using the indigenous psychological approach. An open-ended questionnaire was developed by the first two authors to investigate reasons why children and adolescents feel grateful, respect, indebted, close, conflict, and distance with their parents. A total of 763 participants (212 grade three students, 267 grade eight students, and 284 grade eleven students) completed the questionnaire.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into three main points. First, the vast majority of children and adolescents feel grateful, respect, and indebted to their parents. They feel grateful, respect and indebted for the sacrifice and suffering they experience looking after the family. Moreover, they respects their parents because of their sincerity, blood relationship, benevolence, guidance and educational support. They feel indebted since they did not obey them, were not able to meet their expectations, and were not diligent in their schoolwork. They felt especially close to their mother. The conflict they felt was due to generational gap and in their academic performance. Second, age affects how they perceive their parents. The parent-child conflict increases with age. The feeling of indebtedness also increase with age. However, the feeling of gratefulness and respects decreases with age. The feeling of closeness with father also decreases with age. Third, socio-economic status and educational achievement of children and adolescent affect the perception of their parents. Those with higher academic grade and socio-economic status are more likely to feel respect and indebtedness and less likely to feel conflict and distance.

key words : Children and adolescents, perception of parents, indigenous psychology, gratefulness, indebtedness, respect, closeness, conflict, and distance.